

헤겔 ‘타자’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 -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그 함축-

사상이념팀 박민철

목 차

- I. ‘통일의 새로운 논리’를 찾아서
- II. 분열, 철학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욕구
- III. 타자 개념의 두 흐름과 헤겔의 ‘타자’
- IV.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그 함축적 의미
- V. 결론을 대신하며: 헤겔 타자 개념에 담긴 몇 가지 의미들에 대하여

I. ‘통일의 새로운 논리’를 찾아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통일’의 개념은 실천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의 경계에 서있다. 그것을 규정하는 논자의 학문적, 정치적 지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석되기도 하며, 동시에 주관적인 정서와 감응해서 다양한 방식의 실천적 지향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 중 한반도에서 통일은 어느 정도 후자에 가까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또한 다양한 이론가들이 ‘통일’ 개념의 정의와 범위, 속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¹⁾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송두율이 말하는 ‘통일의 논리’는 어쩌면 하나의 커다란 시사점을 주었다. 그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의 하나로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 나선다.”²⁾고 말한다. 예컨대, 독일통일의 후유증은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금 되묻는 작업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가장 성공한 통일 모형이라 일컬어지는 독일 통일에서조차 통일의 정당성이 다시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면³⁾ 한반도의 통일은 앞 선 모형보다는 더욱더 치밀한 준비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통일의 논리’를 찾는 시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통일의 논리’를 찾는 시도와는 성격이 다를지는 몰라도, 이것은 곧 다음과 물음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즉 통일을 위한 다양한 질문들은 통일의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 나아가 통일이라는 개념과 함께 다뤄져야 할 숨겨진 원리 및 법칙 등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 통일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몇 가지의 예가 있겠지만,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정치, 사회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창출하는 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의 두 종족 사회가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서 다시 하나의 사회로 되게 만드는 창조 작업” 등의 설명이 통일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각각은 김세균, 「통일과정의 정당성과 남북한의 체제개혁」,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 모색』, 한국정치학회, 1993, 20쪽. 그리고 이상우, 「남북한 정치통합: 전망과 과제」, <국제문제> 제 24권 제 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3년 3월호, 53쪽.

2)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8, 225쪽.

3)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8, 33쪽.

물론 통일의 논리를 찾는 시도는 송두율의 지적처럼 자칫 잘못하면 ‘논리를 위한 또 하나의 논리’, 즉 구체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추상적이고 공허한 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감정적이고 당위적인 요청으로 치환시켜 버린 채, 통일의 정당성과 논리적 근거, 원리적 대안 등을 찾는 시도는 소홀해왔다. 분단된 한반도라는 구체적인 현실에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해왔던 측면들이 반드시 요구된다. 통일의 원리를 알고서 구체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둘의 접점, 즉 존재와 이상 또는 현실성과 논리성이 적절히 만날 수 있는 지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어떤 논리적인 법칙성과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철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송두율이 자신의 책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바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헤겔의 철학과 만나게 된다. 그는 당대의 사회현실의 다양한 모순들을 종합하는 활동을 철학이라 규정하고 그것이 갖는 현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한다. “철학은 또한 자신의 시대를 사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⁴⁾라는 그의 언급에는 철학의 주제가 바로 구체적인 현실이며 나아가 이 현실에서의 참다운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현실을 주제로 삼고 참다운 본질을 이해하며, 나아가 그 참다운 본질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⁵⁾ 헤겔이 말하는 철학의 의미이자 역할이며 그것은 헤겔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곧 ‘변증법’인 것이다.

논자는 여기서 헤겔의 변증법적 원리, 특히 그가 말한 ‘타자’ 개념에 담긴 의미와 함축 통해서 남북한의 분단을 지양하고 현실의 통일로 나아가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자는 헤겔의 타자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변증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 타자 개념을 통해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을 알아 보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 제공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현실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육구의 원천’으로서 철학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알아본 후, 통일을 위한 논리적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나아가 3장에서는 변증법적 원리를 내용적으로 보여주는 헤겔의 타자 개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타자’ 개념의 철학적 지평과 함께, 헤겔이 말하는 타자 개념의 존재론적 의미와 원리 등을 다룰 것이다. 뒤이은 4장에서는 헤겔의 타자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이를 통한 북한 이해의 인식론적 반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 분열, 철학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욕구

분단은 기본적으로 ‘분열과 상이성, 그리고 적대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이종석의 말⁶⁾은 우리 논의의 실마리를 준다. 분단 6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커다란 분열을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또한 우리에게 서로의 상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4)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in zwanzig Bänden, Bd. 7.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s.26. 이하에서 인용되는 헤겔의 저작들은 모두 Suhrkamp판을 대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앞으로 헤겔 저작을 인용할 때는 책 제목(이탤릭체)과 페이지(s.) 혹은 절(§) 표시만 한다.

5)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24.

6) “분단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분열과 상이한 삶의 양식, 그리고 적대성이라는 세 층위의 내용을 갖는다.”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29쪽.

적대성으로 넘어가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분열된 남과 북의 상황은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일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그것에 대한 욕구는 어쩌면 분열을 중요한 계기로 갖는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듯이, 어떠한 분열은 사실상 피할 수 없을뿐더러 필연적이다. 따라서 문제는 분열 자체를 절대적으로 고정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것이다. 분열 자체를 통일을 향한 중요한 계기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결정적인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헤겔이 말하는 철학의 의미, 역할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을 만날 수 있다. 헤겔은 「피히테와 셸링 철학 체계의 차이」에서 십여개의 봉건국가로 분열된 당시 독일을 “인간의 삶에서 통합의 힘(Macht der Vereinigung)이 사라지고 대립들이 살아 있는 관계, 그리고 상호 작용을 상실해버리고 제각기 독자성을 획득하게 된”⁷⁾ 시대로 규정한다. 그런데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통합의 힘이 사라져 분열이 빚어질 때, ‘철학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즉 “‘분열(Entzweiung)’이야말로 철학의 욕구의 원천”⁸⁾인 것이다. 이처럼 분열을 긍정적인 계기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통일된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욕구의 활동이 바로 철학이다.

다른 한편 헤겔은 “총체성으로부터 의식이 벗어나 있는 상태”⁹⁾를 분열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총체성으로부터 벗어난 의식’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열을 문제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의식’인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의식의 상태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리와 제한의 능력으로 인해 분열을 고착화하는 ‘오성(Verstand)’이고¹⁰⁾, 다른 하나는 지성에 의해 절대적으로 고착화된 분열을 극복하고 총체성의 회복을 꾀하는 ‘이성(Vernunft)’이다.¹¹⁾ 즉 어떤 특정한 분열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오성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상대적 분열로 격하시켜 통일의 상황으로 이행하는 것이 이성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성은 수동적으로 분열을 지켜보고 그것을 고정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분열을 통일로 만들어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이와 같은 “무한한 생성과 산출 활동”¹²⁾으로서 이성의 역할을 자신의 내용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존재와 비존재’, ‘주체와 객체’, ‘너와 나’, ‘유한자와 절대자’ 등의 대립을 통합하여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¹³⁾

바로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본질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변증법’이란 용어로 시대의 분열 상황을 포착했다는 것은 분열된 현실을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러한 분열은 오히려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철학, 새로운 현실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구체화될 때 ‘변증법적 원리’를 내용을 삼는 철학인 것이다. 철학사를 더듬어 보면 ‘변증법’은 우선 대화, 문답법의 의미에서 성립했지만, 중세에 형식논리학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계를 거쳐 헤겔적인 의미에서의 변증법은 실재하는 분열과 모순을 원동력으로 하여 변화하는 ‘사물(또는 사태) 자체의 운동 논리’¹⁴⁾이자 또한 그와

7) *Jenaer Schriften 1801-1807*, s.22

8) *Jenaer Schriften 1801-1807*, s.20

9) *Jenaer Schriften 1801-1807*, s.15

10) *Jenaer Schriften 1801-1807*, s.27

11) *Jenaer Schriften 1801-1807*, s.20

12) *Jenaer Schriften 1801-1807*, s.22

13) *Jenaer Schriften 1801-1807*, s.25

같은 ‘사물(또는 사태)를 인식하기 위한 학적 방법’¹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¹⁶⁾

이제 다시 이종석이 언급한 ‘분열-상이성-적대성’의 구조로 되돌아가보자. 이 구조는 헤겔이 『논리학』에서 변증법적 구조를 정식화하는 구절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가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변증법적 논리규정은 ‘동일성(Identität)- ‘구별(Unterschied)과 대립(Gegensatz)- ‘모순(Widerspruch)-’(통일의) 근거(Grund)’라는 구조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또한 바로 ‘분단 이전의 한반도’, ‘한반도의 분단과 분단의 지속’, ‘남북한의 대립과 모순’의 논리와 일치한다. 한국전쟁의 결정적 계기를 통해 한반도는 남과 북이라는 외적인 ‘구별’로 진행했으며 60여년 간의 분단기간은 서로간의 적대적인 ‘대립’과 ‘모순’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원리에서는 바로 ‘구별’과 ‘대립’, ‘모순’은 통일을 향한 계기로서 작용한다. 즉 변증법적 원리에서 통일은 모든 대립과 구별을 배제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통일이다.¹⁷⁾

헤겔식으로 표현해 ‘분열’으로부터 ‘통일’로의 이행은 위에서 언급한 논리적 이행구조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통일과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통일의 원리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고 서로간의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통일이야말로 이성의 이상이다.”¹⁸⁾란 헤겔의 언급 속에는 이 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평을 제공한다. 통일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형식 혹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추상으로부터 존재로 나아가는 방식, 두 번째는 존재로부터 사고의 추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그것이다.”¹⁹⁾ 이 말은 곧 뒤이어서 그가 얘기한 대로 “이념은 존재를 매개로 해서만 참된 것이며, 반대로 존재도 이념을 매개로 해서만 참된 것이다.”²⁰⁾라 말한 구절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통일의 논리는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매개로 해서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분단 상황의 극복도 통일의 논리성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로 바뀌어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송두율은 “여러 가지 체제와 이념이 공존하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세계의 혼돈된 상황을 중

14) *Wissenschaft der Logik I*, s.552

15)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81 Zusatz.

16)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변증법의 구조는 바로 ‘정(正)-반(反)-합(合)’이라는 구조이다. 물론 변증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분법의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헤겔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변증법의 구조를 (시원, 진진, 종결), (첫번째 것, 첫 번째 것의 부정, 두 번째 것의 부정), (즉자, 대자, 즉자대자), (보편, 특수, 개별) 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삼단계적 변증법의 핵심은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의 부정임과 동시에 세 번째 항의로의 다리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사태를 인식하기 위한 학적 방법론에서 말하면 직접적으로 대상의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항에 해당하고, 대상을 지성의 힘으로 분석해서 나누는 것은 두 번째 항, 나아가 뿔뿔이 흩어진 대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체성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세 번째 항에 해당한다.

17) 앞 서 말한 논리규정들을 헤겔이 『논리학』 ‘본질론’에서 밝힌 규정들로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남북의 분단상황에 대입시키기에는 보다 많은 연구와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질론은 ‘동일성’, ‘구별과 대립’, ‘모순’을 통해 통일의 근거를 마련하는 반성적 사유규정들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통일의 논리’를 찾는 시도로서 반드시 연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는 사실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변증법의 내용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논리학』의 ‘존재론’에 맞춰질 것이다.

18)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49 헤겔에서 ‘통일(Einheit, Einigung, Vereinigung)’은 ‘합일’, ‘총체성’, ‘전체성’ 등의 개념과 거의 등가적이며, 그의 사색의 기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독일어에서 말하는 ‘Einheit’는 원래 ‘하나인 것’, ‘하나로 된 것’을 의미하며, ‘Einigung’은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1. 한편으로 다수성에 대한 ‘단일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2.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에 대한 ‘통일성’, 3. 구별에 대한 ‘동일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러나 헤겔이 말하는 통일성이란 다수성과 다양성, 구별, 차이에 대립하는 단일성, 통일성, 동일성이 아니라 앞 선 것들을 내포한 총체성으로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19)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50

20)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79

합적이고 분석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조건”²¹⁾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가 찾으려고 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듯하다. ‘통일의 논리를 찾는 시도는 현실의 분열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대립과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아, 다시금 구체적인 현실에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물론 ‘통일의 논리’를 찾으려는 철학은 어쩌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거나 또는 그 실천적 지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철학적 사유의 본질이 이처럼 대립자들의 분열과 고립화를 막고 그들의 살아 있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남북의 분열과 적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철학은 극히 필요한 실천적 지식일 것이다.²²⁾

Ⅲ. 타자 개념의 두 흐름과 헤겔의 ‘타자’

본 장에서 ‘타자’ 개념을 주제로 삼는 건 훗날 헤겔이 “타자로의 이행”²³⁾을 변증법의 내용적 형식으로 정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타자 개념 이해가 현실의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어떤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타자를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자기(das selbe)가 아닌 자’ 또는 ‘자기와의 비동일자(das Nicht-identische)’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맥락에서 플라톤은 『소피스테스』에서 ‘타자’를 파르메니데스의 ‘비존재(無)’²⁴⁾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타자’ 개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을 사용할 때, 이 부정을 통해서 ‘어떤 것과 대립된 것’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되는 사물들과 상이한 것’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존재를 부정하는 비존재를 설명할 때는, 우리는 ‘존재와 대립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와 상이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존재의 부정인 비존재, 즉 타자는 ‘존재에 대립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²⁶⁾ 또한 타자의 타자성 역시 ‘존재의 본성’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자신에 고유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는 것이다.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의 비존재, 즉 타자를 상이성으로 재해석하려는 것은 이를 통해 파르메니데스의 ‘비존재의 말할 수 없음과 사유불가능성’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파르메니데스의 비존재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비

21)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8, 233쪽.

22) 이와 관련해서 루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겔의 본성은 처음부터 강하게 실천 지향적이었다. 그는 그 자신의 시대의 정치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했다.” G. Lukacs, *Der junge Hegel, Ueber die Beziehung von Dialektik und Ökonomie*, Georg Lukacs Werke, Bd. 8, Zurich, 1967. s. 40(국역본: 게오르크 루카치, 김재기 옮김, 『청년헤겔』, 동녘, 1990, 59쪽)

23)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84

24)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비존재는 참으로 ‘있지 않고’, 그리고 비록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고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유는 존재에 대한 사유이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존재만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서 비존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파르메니데스는 존재가 참으로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며, 더 나아가 존재는 ‘생성, 소멸하고 않으며’ 그래서 ‘항존하며’, ‘하나’이며 ‘전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파르메니데스는 있음과 있지 않음 또는 존재와 비존재를 명확히 구별한다. 그래서 그는 ‘비존재는 있지 않다’를 확고히 하고, 양자의 연관을 철저히 금지시킨다. 파르메니데스, 단편 2, 3, 8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은 탈레스 외, 김인곤 외 옮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05와 송영진, 『플라톤의 변증법』, 철학과 현실사, 2000을 참고로 함.

25) 플라톤, 김태경 옮김, 『소피스테스』, 한길사, 2000, 257b-c

26) 플라톤, 김태경 옮김, 『소피스테스』, 한길사, 2000, 257d-258c

존재는 ‘언어적 사유’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와 같은 비존재의 개념설정을 ‘타자’로 환원시키면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비존재를 ‘이해가능한 타자’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²⁷⁾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 기반없음’ vs. ‘존재론적 기반’, ‘사유할 수 없음’ vs. ‘사유할 수 있음’ 또는 ‘이해불가능성’ vs. ‘이해가능성’이라는 타자 개념에 대한 차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먼저 전자의 입장은 엠마누엘 레비나스에서 그 흐름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동일자의 철학’, ‘힘의 철학’, ‘자아론’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철학적 전통이 ‘동일자에 의한 타자의 흡수’를 목적으로 했다고 비판한다. 이것들이 전체성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존재론과 대비되는 자신의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말하며, 존재론에 대한 형이상학의 우위를 그리고 존재론의 전체성에 대립되는 형이상학의 무한성을 강조한다. 이때의 형이상학은 ‘나’의 세계에서 떠나 ‘나’의 바깥 또는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자를 향하는 운동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초해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와 더불어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자아 자체가 결코 아니”²⁸⁾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아가 타자의 타자성을 “향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잠정적 규정으로서의 타자성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가 곧 타자성인 그런 의미의 타자성”²⁹⁾으로 규정한다. 즉 타자는 나와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자아라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다. 이때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공감이나 연민’, ‘전원적이고 조화로운 관심’, ‘개념적이고 대상적인 관계’가 아닌 ‘철저한 외재성’ 내지 ‘절대적인 초월성’인 것이다.³⁰⁾ 레비나스가 타자와 ‘타자의 타자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타자를 나와 동일한 선상에서 위치시킬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권력관계’를 지양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에게 타자는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지배할 수 없는 절대적 외재성을 지녀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타자는 그것과 맺는 비대등적, 비대상적 관계성 속에서 ‘나’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주체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훗날 레비나스는 나에게 윤리적 책임을 갖도록 명령하고 호소하는 존재로서 타자의 타자성을 규정하면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자 또는 타자의 타자성 이해는 어떠한 한계를 갖는다. 우선 타자에 대한 철저한 외재성은 사실상 역설적이게도 주체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방법적 요청의 모습을 띄게 된다.³¹⁾ 또한 현실적인 의미와 관련해서도 한계를 갖는다. 구체적인 현

27) 플라톤이 이렇게 파르메니데스의 ‘비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파르메니데스의 이론 안에 담긴 어떤 수행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파르메니데스 식의 사유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유이다. 하지만 ‘비존재의 말할 수 없음과 사유불가능성’ 자체를 말하거나 사유한다는 것에는 비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비존재를 주장하거나 논박하려고 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이 비존재를 말해야만 하고 사유해야만 한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28)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9, 85쪽.

29)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9, 84쪽.

30) 레비나스와 비슷한 의미에서 가리타니 코오진은 플라톤의 타자 개념을 비판하면서 ‘타자가 자신과 동질적이라는 것.....그래서 거기에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에게 타자는 주체와의 어떤 공통규칙도 공유하지 않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화’가 되지 않는 존재, 철저한 외적 긴장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가리타니 코오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98, 14쪽. 또한 그에게 따르면 ‘초월적 주관을 통해 타자를 구성하는 후설, 사고 주체로부터 존재로 전환한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뵁상 데공브 식의 해석을 통해, 인식론적 주체를 확립하고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을 정립한 데카르트에게는 타자가 존재한다. 가리타니 코오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98, 18쪽.

실 세계에서 마주치는 타자는 우리들과 지난한 갈등과 모순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 즉 경험적으로 나와 동일한 현실적인 지평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타자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레비나스 식의 신앙적 결단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타자는 구체적인 실천적 지향점을 담보하기 어렵다. 예컨대 우리들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층위에서 북한이라는 타자와 마주하며, 이들과의 현실적인 갈등과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자와의 인정과 교류,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의 말처럼 비대등적이고 비대상적인 타자관계는 그 자체론 어떤 의미가 있긴 하더라도, 초월적 대상으로서 타자는 분단된 현실의 우리에게 어떤 지향점도 제공해주질 못한다.

이와는 달리, 사유가능하고 이해가능한 타자성의 기본적 틀은 헤겔의 타자 개념과 유사하게 전개된다.³²⁾ 헤겔은 『논리학』 ‘존재론’ 부분에서 ‘존재와 무’를 설명하고 ‘무’를 ‘타자’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의 목적은 타자 산출의 존재론적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헤겔은 우선 ‘학문의 절대적인 시원’을 묻는 질문을 통해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존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순수존재(reines Sein)’ 자체를 존재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어떠한 규정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순수존재’는 “오직 순수한 무규정성이며 공허함일 뿐”³³⁾이며 결과적으로 ‘순수존재’는 “사실상 무이며, 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³⁴⁾ 이리하여 결국 ‘무’는 ‘순수존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된다. 그런데 ‘순수존재’=‘무’라는 구조는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순수존재’이면서 ‘무’이고 ‘무’이면서 ‘순수존재’이어야 한다. 헤겔은 이와 같은 모순의 해결을 ‘이행’으로서 설명한다. “존재도 무도 진리가 아니며, 존재가 무로 또 무가 존재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에게 이행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이다.”³⁵⁾ 서로가 서로에게 ‘이행하는 것’이 아닌 ‘이행된 것’으로서 진리, 다른 말로 존재와 무의 통일이 바로 존재와 무 자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이때 헤겔은 이러한 진리로서 이행된 것을 “서로가 각기 직접적으로 자기의 반대물 속에서 소멸하는 상태”³⁶⁾인 ‘생성(Werde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성 속에서 존재와 무는 사라지거나 독립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 않고 서로의 계기로서 존립한다. 즉 존재와 무는 독자적인 어떤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있게 된다. “존재와 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독자성으로부터 계기로 전락하는데, 둘은 먼저 아직 구별되는 것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지양된 것으로 간주된다.”³⁷⁾ 여기서 지양이란 존재와 무 모두는 ‘자기와 같지 않은 것’으로서 타자와의 관계 또는 타자와 매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헤겔은 ‘서로가 구별되면서 서로가 매개되어 있는’ 존재와 무의 통일로서 생성의 의미를 “타자와의 통일”³⁸⁾로 정의한다.

따라서 헤겔이 규정한 타자 개념의 최초의 형식은 “‘무’로부터 도래한 타자성”³⁹⁾, 즉 ‘단적

31) “하지만 레비나스는 누구보다 강하게 ‘주체성’을 변호한다.”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87쪽.

32) 플라톤의 『소피스테스』와 헤겔 『논리학』에서 다루지는 타자 개념의 유사성은 M. Theunissen, *Sein und Schei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1980, s.248(국역본: 미하엘 토이니센, 나중석 옮김, 『존재와 가상 -헤겔 논리학의 비판적 기능-』, 용의 숲, 2008, 292쪽 이하)에서 지적되고 있다.

33) *Wissenschaft der Logik I*, s.82

34) *Wissenschaft der Logik I*, s.83

35) *Wissenschaft der Logik I*, s.83

36) *Wissenschaft der Logik I*, s.83

37) *Wissenschaft der Logik I*, s.112

38) *Wissenschaft der Logik I*, s.112

인 타자'이다. 앞서 보았듯이, '순수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를 자신 안에 필연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즉 어떤 것은 자신의 '타자'를 필연적으로 자기 안에 내포하고 있다. 헤겔 타자 개념의 존재론적 근거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 달리 말해 타자의 존재는 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생성 속에서 그 양자는 구별된 것으로서 있으려니와, 또한 이 생성은 어디까지나 그 양자가 상이한 것인 한에 있어서만 가능하”⁴⁰⁾다는 사실이다. 존재와 무는 존재론적 기반을 공유한 ‘같지만 다른 것’들인 셈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무無기반’ vs. ‘존재론적 기반’, ‘사유할 수 없음’ vs. ‘사유할 수 있음’ 또는 ‘이해불가능성’ vs. ‘이해가능성’이라는 타자 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헤겔은 전적으로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1. 타자는 존재론적으로 자기와 동시에 존립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2. 타자의 정립은 자기의 정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 따라서 타자는 자기와 독립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반성작용이 낳은 자기의 부산물 불과하다’ 요컨대,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은 갖춰지더라도 그것들의 자립성은 종속적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헤겔 타자 개념은, 존재에서 무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타자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타자는 동일성의 논리 아래에서만 존재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헤겔의 타자 개념의 해석방식은 특히 데리다에서 발견된다.⁴¹⁾ 데리다의 해석에서 볼 때, 동일성에 대한 강조는 타자 그리고 타자의 타자성을 절멸시키려는 성격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배논리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전형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지젝은 타자, 즉 차이성에 대한 동일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해석이 헤겔 철학의 핵심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젝에 의하면 “동일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여는 부정적인 운동(즉 차이, 타자: 논자주)”⁴²⁾이 헤겔 철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젝이 이해하는 헤겔식의 타자와의 관계는 어떤 종류의 동일성애로의 회귀도 수반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동일성으로 포함되는 어떤 이행적인 계기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성이 자신의 파괴력을 모두 보존”⁴³⁾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성 혹은 타자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지젝 식의 해석에 따르면 헤겔 타자 개념의 핵심은 데리다의 이해방식과는 달리 나와 타자간의 구별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끊임없는 모순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⁴⁴⁾

즉 존재와 무의 통일인 생성에 대한 헤겔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규정력을 보존한다. 예컨대 존재와 무는 서로에 대한 부정이지만, 존재는 무가 있어야만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무는 존재가 있어야만 설명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타자는 존재론적으로 자기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기자신을

39) *Wissenschaft der Logik I*, s.95

40) *Wissenschaft der Logik I*, s.87

41) Jacques Derrida, trans. by Allan Bass, *Writing and Differ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P251-p277(국역본: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글쓰기와 차이』, 동문선, 2001, 328쪽 이하)

42) S.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299쪽

43) S.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298쪽

44)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뵘뵘 데퐁브의 해석이 바로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동일자’는 ‘타자와 다른 것으로’로 설정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동일자가 그것이 주장하고 의도하는 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타자 덕분이다.” 뵘뵘 데퐁브, 박성창 옮김,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3, 55쪽.

규정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책상이 갈색이다’라는 명제를 헤겔식으로 해석하면, ‘책상’이 ‘갈색’을 통해 책상이 아닌 것으로 부정되었으며, 동시에 이 ‘책상’은 ‘갈색’이라는 것을 통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규정적인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책상은 책상이다.’는 식의 표현은 추상적인 동일성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것의 존재 자체는 자신 이외의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타자의 실재성은 오히려 자기를 자기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헤겔이 적고 있는 바와 같이, ‘타자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헤겔은 타자의 타자성에 함축된 부정성과 동시에 규정성을 “규정적인 부정”⁴⁵⁾이라 칭한다. 바로 이와 같은 설명들이 ‘존재와 무의 변증법’이며, 곧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을 최초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⁴⁶⁾ 정리하자면 헤겔의 타자 개념은 ‘존재론적으로 자기와 다른 것임과 동시에 자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며, 타자성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그 함축적 의미

헤겔의 타자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면, ‘북한’은 우리에게 타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논리적 근거’를 통해 정당화 된다. 다른 말로 ‘북한이라는 타자’는 남한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났고, 그 나름의 기반 속에서 우리와 동시에 존재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실은 ‘논리적 근거’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여지껏 북한을 나름의 존재론적 기반을 갖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존재론적인 ‘동일성’을 무시한 채 남한과의 존재론적 ‘차이성’에만 충실했다. 예컨대 이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기존의 통일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북진통일론’이나 ‘흡수통일론’에서는 북한의 자립적인 존재론적 기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대상으로서 단지 사라져버려야 할 대상이거나 우리가 흡수해서 그것의 존재를 없애야만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어느 한쪽이 없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자립적인 존재론적 기반은 진정한 ‘통일’의 존재론적 기반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나와 동일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존재론적 기반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상호인정과 배려, 상호간의 대화와 소통 등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남과 북이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로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으로도 확인된다. 예컨대, 동일하게 겪어야만 했던 식민 지배와 전쟁의 고통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동일한 존재론적 경험 기반으로 남아있다. 또한 외세의 압력과 분단의 고통 역시 남과 북 모두에게 규정력을 행사하는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북을 부정하며 북은 남을 부정하며 규정되어 왔던 시간적으로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나와 타자간의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을 논리적으로 확인했으며, 남과 북의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

45) *Wissenschaft der Logik I*, s.116

46) “이제부터는 이러한 존재와 무의 통일이 최초의 진리로서 단연코 근거에 놓여있고, 모든 뒤따르는 서술의 터전을 형성한다.” *Wissenschaft der Logik I*, s.86

다. 남과 북의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은 여러 존재론적 층위에 포함될 수 있는 남과 북의 공통된 경험과 감정, 욕구와 욕망, 고통과 좌절, 희망과 바람 등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북 소통의 전제 조건이다. 레비나스의 타자성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나와 이질적인 것들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신앙적 믿음과 요청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때 이 둘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기반에 존재하는 타자는 소통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 그러나 헤겔의 타자 개념 속에는 남과 북의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을 이해시켜 주며, 그러한 이해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담겨져 있다. “철학의 첫 번째 임무는 절대적인 무(타자)를 인식하는 것이다.”⁴⁷⁾라는 점을 다시금 떠올리자면, 통일을 위한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 헤겔의 타자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라는 타자’는 발생적 차원에서는 나와 동일한 존재론적 기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엔 타자는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구조 속으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존재가 최초의 시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순수존재의 타자인 무도 최초의 시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존재와 타자 사이에 논리적인 기원에서는 동일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전제되고 공존하고 있으며, 이제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의 존재론적 기반에는 동일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전제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자가 처음 정립되는 경우에 나타나듯이, 타자가 분명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 대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어떤 것의 외부에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에 대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⁴⁸⁾라는 언급을 보자면,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동일성과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존재론적 차이성이 공존하며 이것을 전제로 삼는다는 두 원칙을 가능하다.

그러나 ‘민족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통일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존재론적 기반에 전제된 ‘북한이라는 타자’의 차이성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견해는 남북한의 민족적 동일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둘 사이의 차이성을 소홀히 해왔다. 그 결과 이것은 남북한의 차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 대해 맹목적이고 추상적으로 동일한 관계성만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타자가 갖는 차이성을 사유하지 못하게 했으며 폭력적인 동일성 추구가 남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억압적인 동일성 추구는 남과 북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더욱 키우게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과 북의 차이성은 통일에 필요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차이성이 소멸하지 않고 통일 속에서도 하나의 계기로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의 동일성과 차이성의 통일인 셈이다. 예컨대, “진리는 다만 동일성과 차이성의 통일 속에서만 성립한다.”⁴⁹⁾헤겔의 말은, 통일이 동일성과 차이성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이 둘을 단지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가 모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자신을 이루는 계기로서 서로 공존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에 담긴 동일성과 차이성은 그것이 갖는 논리적인 근거로 인해 정당화되며, 통일의 실현을 위해 이 동일성과 차이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47) *Jenaer Schriften 1801-1807*, s.410

48) *Wissenschaft der Logik I*, s.126

49) *Wissenschaft der Logik II*, s.42

사항임이 밝혀졌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론적 반성을 가져온다. 이것을 반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타자의 타자성 때문이다. 헤겔이 말하는 ‘타자의 타자성’, 즉 ‘규정적 부정성’은 쉽게 얘기해 타자와의 부정적 관계에 있어서만 ‘어떤 것’은 타자와 독립된 자기성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타자의 실재성을 오히려 자기를 자기일 수 있게 한다. 다른 말로, 남한은 북한이라는 타자와의 부정적 관계에서만 남한일 수 있으며, 북한 역시 남한이라는 타자와의 부정적 관계에서만 북한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부정적 관계’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대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타적 존재의 “참다운 규정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를 열어놓고 있는 셈”⁵⁰⁾이라는 언급에는 타자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포함하여 고양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⁵¹⁾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규정적 부정성은 우리가 북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북을 내 안에 포함하여 보다 높은 관계로 고양시킨다는 의미이다. 또한 동시에 북은 남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남을 내 안에 포함하여 보다 높은 관계로 고양시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남과 북의 같음과 남과 북의 다름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중석이 말한 남과 북의 ‘적대적인 상호의존관계’⁵²⁾를 극복하고 ‘공생적인 상호인정관계’로 전환되는 실마리가 제공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같음과 다름의 인정 또는 북한의 체제와 제도의 인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나와 동일한 지평에서 생겨난 타자, 그리고 나와 동일한 지평에서 생활하는 타자, 그리고 앞으로 나와 동일한 시간적/공간적 지평을 공유할 타자의 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정은 바로 남과 북 사이에서 창출된 새로운 것의 인정과 그것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렇듯 통일은 단순한 영토·생활공간의 결합과 통합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과 북 사이에서 창출된 새로운 것의 인정과 그것의 실현’으로 바뀌었다. 이때 이 새로운 것은 예컨대 체제와 제도 등에 관한 반성이 포함될 것이며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 정서, 사상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 통일은 서로 간에 인정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으로서 그려져야 한다.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부정적 규정성은 따라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으로서 인정의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일은 어떠한 새로운 관계망 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통일인 것이다. ‘규정적 부정’에 담긴 의미는 존재가 단순히 동일자적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는 타자와의 비동일적 관계 속에 항상 던져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과 북은 서로 간의 비동일적 관계망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규정되는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나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나를 규정하는 존재로서 ‘북한이라는 타자’는 통일로 나아가는 동태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단순히 무화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유지한 채 우리들의 인식론적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⁵³⁾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타자는 단순한 대

50) *Wissenschaft der Logik I*, s.134

51) 이것이 헤겔이 말하는 ‘지양(Aufhebung)’의 의미이다. “그 말은 우선 ‘폐지하다’, ‘부정하다’ 등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떤 법령이나 규칙이 폐지되었다고 말할 때의 폐지라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aufbewahren, 즉 ‘보존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며 그것은 우리가 한 사물에 대하여 그것이 잘 보존되었다고 할 때의 ‘보존’과 같은 의미이다.”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96

52) 적대적 의존관계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서, 이를 대내적 단결과 통합, 혹은 정권안정화에 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중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33쪽.

53) 변증법이 갖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변증법에 있어서 공통되는 성격을 부각시킬 수는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통적 성격이란 곧 역동성을 말한다. 논리학은 정적이다. 논리적 논증은 정신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그것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적이며

타적 관계로서 남한의 외적인 규정으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타자성에 대한 이해는 곧 대립과 분열, 반목, 차이의 담당자로서 북한을 규정하는 시선에 반성을 가져다 준다. 남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을 꺼려하는 기이한 모순’은 사실상 북한이라는 타자가 갖는 타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반성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타자’를 향한 움직임을 함축해야만 한다.....그리고 ‘동일자이길 그치고 타자와 더불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⁵⁴⁾는 시도를 수행해야만 한다.

V. 결론을 대신하며: 헤겔 타자 개념에 담긴 몇 가지 의미들에 대하여

본 논문이 갖는 가장 큰 목적은 분단을 지양하고 현실의 통일로 나아가게 도움을 주는 어떤 철학적 원리를 찾아보려는데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에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방식이 결코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분단을 극복하려는 철학의 욕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논자는 통일을 위한 논리적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헤겔의 타자 개념 속에 담긴 존재론적 의미와 원리 등을 알아봤고, 그것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북한 이해의 인식론적 반성에 대해 얘기했다. 정리하자면 ‘존재론적으로 남한과 다른 것임과 동시에 남한과 같은 것인’ 북한이라는 타자와, ‘남한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을 규정하는’ 북한의 타자성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에서 서로의 인정은 논리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정당화되었다. 또한 북한의 타자성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본 논문이 가진 한계 역시 명백하다. 논의의 핵심인 헤겔의 타자 개념은 본 논문이 다루었던 ‘존재와 무의 변증법’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헤겔의 타자 개념 역시 반성적 차원에서의 타자라고 하는 다른 층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존재로서 북한이었기에, 헤겔의 타자 개념 역시 존재론에서 등장하는 타자의 개념규정에 맞춰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헤겔의 『논리학』에서 다루지고 있는, 통일로 나아가는 ‘반성규정’의 형식들과 반성적 차원에서의 타자 개념은 논자의 숙제로 남겨둘 것이다.

“남북이 각각 자기방식으로 추구해 온 ‘현대화’의 과정에서 배태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21세기를 맞는 오늘, 남북한 모두는 발상의 분명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⁵⁵⁾는 송두율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더욱더 철저한 북한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의 결과로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정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만 체제와 제도적 통합, 이념적 통합을 뛰어넘는 통일을 그려볼 수 있으며 미래기획적 통일상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깨어 있음’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 사유의 본질

우리의 타성을 벗어나는 사유가 필요하다. ‘변증법’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한 동적 성격이다. 사유가 발견한 것의 논리적 함축의 극한점까지 밀고 나갈으로써, 그리고 최초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관점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정신이야말로 바로 변증법적이다.” 폴 풀키에, 최정식, 임희근 역, 『변증법의 이해』, 한마당, 1983, 135~136쪽.

54) 뱁쟁 데퐁브, 박성창 옮김,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3, 24쪽.

55)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8, 230쪽.

은 바로 이렇게 ‘깨어있음’과 ‘반성적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라는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지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헤겔 원전 및 국외 문헌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G. W. F. Hegel, *Jenaer Schriften 1801-1807*,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70

M. Theunissen, *Sein und Schein*,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1980(국역본: 미하엘 토이니센, 나중석 옮김, 『존재와 가상-헤겔 논리학의 비판적 기능-』, 용의 숲, 2008)

G. Lukacs, *Der junge Hegel, Ueber die Beziehung von Dialektik und Ökonomie*, Georg Lukacs Werke, Bd. 8, Zurich, 1967(국역본: 게오르크 루카치, 김재기 옮김, 『청년 헤겔』, 동녘, 1990)

Jacques Derrida, trans. by Allan Bass, *Writing and Differen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국역본: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글쓰기와 차이』, 동문선, 2001)

2. 국내 문헌

송두율,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8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탈레스 외, 김인곤 외 옮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아카넷, 2005

송영진, 『플라톤의 변증법』, 철학과 현실사, 2000

플라톤, 김태경 옮김, 『소피스테스』, 한길사, 2000,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9

가리타니 코오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98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S.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벵쌍 데퐁브, 박성창 옮김,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폴 풀키에, 최정식, 임희근 역, 『변증법의 이해』, 한마당, 1983

3. 논문

김세균, 「통일과정의 정당성과 남북한의 체제개혁」,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 모색』, 한국정치학회, 1993
이상우, 「남북한 정치통합: 전망과 과제」, <국제문제> 제 24권 제 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3년 3월호,

헤겔 ‘타자’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 :

– ‘북한이라는 타자’의 존재론적 기반과 그 함축

발표 : 박민철(사상이념팀)

논평 : 이정재(생활문화팀)

본 논평자는 철학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기에 이 글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레 느껴졌다. 그래서 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논문을 읽어보려고 하였고, 평 또한 궁금한 것들을 중심으로 물어보고자 한다.

서론 부분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찾기’ 위하여 논리적 법칙성과 원리를 이끄는 방법으로 철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온 개념이 헤겔의 ‘타자’ 개념이다. 헤겔과 변증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려나 하는 궁금증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단어들이 너무 낯선 나머지 2장 소개부분의 ‘욕구의 원천’(p. 2)이라는 문구에서 바로 철학적 용어가 등장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2장에서는 분단의 기본적 성격(분열, 상이성, 적대성) 세 가지를 언급한다. 그런데 여기서 장의 대부분이 ‘분열’만을 다루고 있다. 통일로까지 이행되는 과정 내에 세가지 성격에 대한 내용이 분배되어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본인이 중간에 헛갈리는 것은 큰 틀에서 분단에서 통일로, 분단 내 작은 틀로 보면 분열에서 상이성, 적대성 그리고 통일로 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의 텍스트내용과 함께 도식화 시켜 보여준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이 글은 헤겔의 변증법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글이 오해 없이 읽히는 것 같다. 본인은 변증법을 이해하기 전에 왜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나? 하는 오해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p. 7 <이 때 헤겔은 이러한 진리로서 이행된 것을 “서로가 각기 직접적으로 자기의 반대물 속에서 소멸하는 상태”인 ‘생성(Werde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라는 부분을 읽으며 이 부분에서 p. 3에서 이야기했던 이성의 역할 즉, ‘무한생성, 산출의 의미’와 같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궁금하다. 또한 p. 8 지적식의 타자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 특히 북한과 구별-모순-긴장관계로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헤겔의 타자 개념을 보며 남과 북이 거울의 앞/뒷면과 같이 자기인 동시에 자기와 같은 것이며 이게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무엇? 아니면 합쳐져 두 개가 모두 공존?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본 글을 읽고 헤겔의 ‘타자’ 개념을 통해 모호했던 통일에 대한 방향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막연했던 단어들이 조금 더 명확하고 방향성 있는 내용으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단군신화>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 비교

나지영(정서문예팀)

<차례>

1. 서론
2. 북한의 <단군신화> 연구 동향
3. 남한 연구와의 비교
4. 결론

1. 서론

<단군신화>는 남한과 북한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작품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단군신화>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문헌으로 언급한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에 실려 있다. 이 가운데 단군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면서⁵⁶⁾,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동일한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이처럼 <단군신화>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이전부터 공유해 온 작품으로서, 서로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연구 관점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의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보면서 그와 관련한 남한의 연구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단군신화>에 대한 북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탐색해보면서 남한 연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늠해 보려는 것이다.

2. 북한의 <단군신화> 연구 동향

북한에서는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단군’, 또는 ‘단군’의 공적을 기리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해왔다. ‘단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논의들은 단군이 민족의 시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러한 논의들은 <단군신화>를 해석하는 북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

56) ‘문헌학적견지에서 보아도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과 시조왕으로 알려진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현존하는 우리 나라 문헌유산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책이다. 그런것만큼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에서 <삼국유사>는 모든 자료들을 대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데서 기초에 놓이는 문헌자료로 된다고 할 수 있다.’(정종교, 『조선문학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1쪽.)

57) 북한의 학자 홍기문은 『조선신화 연구』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세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삼국유사』적 유형, 『제왕운기』적 유형, 『삼국사기』적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단군신화>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홍기문, 『조선신화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지양사, 1989)) 남한의 학자 서영대도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에서 『삼국유사』 유형, 『제왕운기』 유형, 『응제시』 유형, 『규원사화』 유형으로 나누어 각 문헌에 실려 있는 <단군신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47~81쪽.)

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 뒤에, 단군과 관련한 작품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단군신화>와 관련한 연구

현재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문학사 및 개별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77 (이하①)
- ② 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I,天池, 1982 (이하②)
- ③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이하③)
- ④ 정영진, 「<단군신화>를 두고」, 『천리마』 11호, 1985 (이하④)
- ⑤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3호, 1987 (이하⑤)
- ⑥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역사과학』 4호, 1987 (이하⑥)
- ⑦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1)」, 『역사과학』 3호, 1988 (이하⑦)
- ⑧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2)」, 『역사과학』 4호, 1988 (이하⑧)
- ⑨ 강인숙, 「단군신화와 력사(3)」, 『역사과학』 1호, 1990 (이하⑨)
- ⑩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0호, 1991 (이하⑩)
- ⑪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0호, 1993 (이하⑪)
- ⑫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 2004 (이하⑫)

다음에 소개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는 북한에서의 전반적인 연구 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제를 역사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떼내어 추상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145페이지)⁵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군신화는 우리 나라 건국신화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 신화에는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가 발생하던 력사적시기가 반영되어있습니다.⁵⁹⁾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단군신화>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와의 관련성이다.

<단군신화>를 칭하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북한에서의 연구 관점이 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1980년대에 출간된 문학사 ①,②에서는 <단군신화>를 각각 <고조선 건국 신화>⁶⁰⁾ 또는 <고조선 신화>⁶¹⁾라고 칭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단군신화>⁶²⁾라고 칭하고 있다. 그 후 <단군신화>는 ‘단군설화’⁶³⁾ 또는 ‘단군전설’⁶⁴⁾로 불리어지게 된다. 점차 ‘신화’라는 표

58)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역사과학』 3호, 1987.

59)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0호, 1991.

60) ‘<고조선 건국 신화>는 고조선 국가의 창건자라고 하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이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77, 34쪽.)

61) ‘<고조선 신화>는 옛날 문헌에 「단군신화」로 전해 온 것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신화들 중 가장 오랜 것이다.’(김일성종합대학 편, 『조선문학사』 I,天池, 1982.)

62) ‘《<단군신화>는 조선옛류형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설화적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며 여기에 이 신화유산이 가지는 중요한 문화사적가치가 있는 것이다.’(정홍교, 『조선문학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4쪽.)

63) ‘이미 알려져있었지만 단군설화는 먼 옛날 우리 선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건국설화로 창조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건국설화라고 할 때 그것은 신화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에

현대인 ‘전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군신화>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1) <단군신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

우선 북한의 문학사 ①,②,③에서 <단군신화>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에서 곰과 범은 두 개 씨족의 토tem을 반영한 것이 인정되며 썩과 마늘, 환웅과 곰녀의 결혼, 단군의 출생 등은 부계 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신화에서는 이러한 원시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 설화적 내용이 계급 사회에 들어선 시기의 생활과 국가 권력을 잡은 통치 계급의 사상과 융합되어 있다. 신화에서 세상을 다스려 볼 뜻을 품은 환웅이 3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상에 내려 왔다는 것은 씨족공동체 시기의 정복 전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 신화에는 하늘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신화에서 하늘신은 인격신으로 전환되고 그 인격신이 종족 신인 곰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는다.(①)⁶⁵

①에서는 <단군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원시공동체 사회의 생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곰과 범은 두 개 씨족의 토tem을 반영한 것이며, 환웅과 곰녀의 결혼, 단군의 출생 등은 부계 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 속에 하늘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신화의 원초형은 우선 아득한 원시 시기 즉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무리를 지어 살던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략) 원시 동굴 집거 생활·원시적 채집 경제·원시 농사 등 원시 주민들의 제반 원시적인 물질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고조선 신화」에는 또한 우리 나라 먼 선조들이 원시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 사회 발전의 다음 단계인 노예 사회·계급 사회에 들어선 시기의 생활도 반영되어 있다. (중략) 이와 같이 신화의 내용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 발전 단계의 사회 현실과 인간들의 사회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신화에는 원시 집단 생활로부터 고대 계급 국가 출현 이후의 생활에 이르는 사회적 현실과 인간들의 의식 관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이 「고조선 신화」가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쳐 창조 전승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②)⁶⁶

②에서도 <단군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선조들의 원시 공동체 생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단군신화>를 통해 원시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단군신화>가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쳐 창조·전승되어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단군의 가계와 출생담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의 기저에는 인간의 기원과 인간사회의 창시와 관련된 원시적인 사고와 인류 최초의 사회의식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최초의 사회의식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인간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의혹과 그에 대한 해석과 리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해석과 리해는 환상적인 관념으로부터 점차 과학적이며 유물론적인 것으로 지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로서 《단군신화》는 조선옛류형사람들의 사회의식형성과 그 특성을 설화적형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며 여기에 이 신화 유산이 가지는 중요한 문화사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신화에서 곰과 범은 하나의 종족집단을 이룬 두 개 씨족의 토tem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며 썩과 마늘, 환웅과 곰녀의 결혼 등은 부계씨족사회의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③)⁶⁷

③에서도 ①,②에서처럼 <단군신화>에 반영된 옛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단군의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에서는 단군의 가계와 출생, 건국과정을 신적이고 기적적인 것으로 신비화하면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신성시하였다. 실제한 역사적인물을 신격화하여 신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운것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고대문명국가를 일떠세우고 민족사발전의 시원을 열어 놓은 원시조 단군에 대한 숭배심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다. 먼 고대시기에 신화로 이미 창조된 단군설화는 그 후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화적외피를 벗어버리고 전설화되었으며 단군은 신화의 주인공으로부터 전설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 2004.)

한편 단군설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부단한 보충윤색과정을 거쳐 보다 풍부화되었다.

- 64) 천수산, 조선민족의 단군에 대한 신앙, 1호, 1996.
- 6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1, 이회문화사, 1977, 35쪽.
- 66) 김일성종합대학 편, 임현영 해설, 『조선문학사』 I,天池, 1982, 28~29쪽.
- 67) 정홍교, 『조선문학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3~54쪽.

가계와 출생담에 관한 이야기의 기저에 깔려 있는 당대 사람들의 사고와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간사회의 형성에 대해 환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단군신화>를 역사적 배경과 연관 지어 연구해 왔다. <단군신화>가 당대인들의 사상과 생활환경을 반영한다고 전제하면서, 당대의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단군신화>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신화>를 통해 원시 집단생활로부터 고대 계급 국가 출현 이후의 생활에 이르는 사회적 현실과 인간들의 의식 관념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⑩에서도 <단군신화>가 원시사회말기 우리 조상들의 생활형편과 국가의 설립에 대하여 전해주는 자료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신화에서 하늘신 웅, 부하신(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뭇귀신(무리 3,000)으로 신의 세계를 세계층으로 구분하여 전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종족성원들이 종족장, 씨족적귀족, 일반종족원들로 구분되어있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웅이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신(태양신)을 주되는 신으로 숭배한 종족이 다른고장에서 이동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신화의 곰과 범은 고조선의 발상지에 있던 씨족들의 이름이고 그들이 한골에서 살고있었다는 것은 두 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있었음을 말한 것이며 곰만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종족내에서 곰씨족의 귀족들이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곰녀자가 웅과 혼인하였다는 것은 웅이 거느린 하늘신을 주되는 신으로 숭배한 이주민종족과 동물을 자기 조상으로 숭배한 본고장의 원주민종족들 사이에 종족연맹을 이루었음을 말한 것이다. 공동체성원들로부터 《신시》(큰어른)로 불리운 웅이 곡식과 목숨, 병과 형벌, 선과 악 등 인간세상살이를 주관하였다는 신화의 이야기는 종족연맹체의 정치적수장이며 신앙행사를 담당한 공동체추장이 수행한 주되는 일들을 말한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종족연맹체가 이루어지고 사회성원들이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어있었으며 형벌의 맹아적형태들이 나온 사회는 원시사회말기에 해당한다. 단군의 출생경위까지 전한 신화의 앞부분은 이러한 역사적사실에 토대하여 꾸며진 이야기이다.(⑩)⁶⁸⁾

⑩에서 환웅은 하늘신을 숭배하는 종족의 정치적 수장으로서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왔으며, 곰과 범은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씨족들의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통해 환웅은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 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구성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군의 출생 이전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분석해보면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기 이전의 사회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단군신화>의 신화적인 내용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갖고 있는 사실 토대에 대해 논하고 있다.

2) <단군신화>와 원시신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⑤,⑦,⑧,⑨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다. 이 연결된 논의들은 <단군신화>와 <단군신화>의 창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신화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단군신화>의 내용을 구조화시켜 분석하였다.

웅신화와 곰설화가 원시신화였다면 단군신화도 선행한 저러한 신화유산들에 토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건국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완성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형성유래를 이상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건국신화가 왕조의 번성과 계급적지배를 위한 정신적도구라는 점에서 건국당시부터 그것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기 시작한다는 일반적인리유에 의하여, 다른편으로는 《조선(고조선)》의 경우 원시신화(웅과 곰 신화)를 선행한 사회로부터 유산으로 넘겨받음으로써 건국신화를 만들 수 있는 유리한조건을 가지고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하여 비록 소박하고 유치한 형태의것으로나마 단군신화는 고조선건국당시나 그 직후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리라는것을 추정할 수 있다.(⑤)⁶⁹⁾

⑤에서는 환웅과 곰에 대한 원시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단군신화>가 만들어

68) 강인숙, 「고조선의 건국설화-단군신화」, 『천리마』 10호, 1991.

69) 강인숙, 「단군신화의 형성시기」, 『력사과학』 3호, 1987.

졌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환웅과 관련되는 원시신화와 곰과 관련된 원시신화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⑦,⑧,⑨에서는 본격적으로 <단군신화>와 원시신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단군신화가 후세에 조작된 거짓 신화가 아니라 고조선의 건국당시로부터 그 직후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참 신화라는 것이 뚜렷해지고(《역사과학》 1987년 3호) 그 애초의 모습이 대체로 어떠하였으리라는 것(근사한 신화원형)이 측정된(《역사과학》 1987년 4호) 이상 신화의 해석을 통하여 그것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로 남게 된다.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사한 신화원형자료를 그 구성의 특성에 따라 웅신화, 단군의 출생신화, 단군의 건국기사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⑦)⁷⁰⁾

⑦에서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환웅과 관련한 신화, ㉡단군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 ㉢단군의 건국기사로 나누었다. 이는 ⑤에서 살펴본 것처럼 환웅과 관련한 신화와 단군과 관련한 신화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우선 ‘㉠환웅과 관련한 신화’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래에 사가들은 단군신화해석에서 위에 소개한 웅신화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지만 사실은 단군의 출생신화나 건국기사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그것이 있음으로 하여 단군신화가 건국신화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나타낼수 있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웅신화가 단군이 《조선(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시기의 원시사회상을 놀라우리만치 풍부하게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중략) 신화의 주인공 웅은 공동체성원들로부터 《신지(큰 어른)》로 불리운 부계씨족공동체의 정치적수장이었으며 제천행사를 주관한 신관이였다(웅의 정체). 그는 자기의 공동체성원들을 이끌고 새 고장(후날 고조선의 발상지)에 이동하여(지역적 무대)정착농업을 하였다. 경제생활에서 기본은 농업이였다(추장의 사회적 직능 첫째). 농업생산의 발전으로 잉여생산물이 출현하고 사적 소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성원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공동체추장, 씨족적 귀족들, 공동체일반성원들)으로 구별되였다(사회의 계층구조). (⑦)⁷¹⁾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웅’은 ‘환웅’을 가리키는 것으로, ‘웅’의 실체가 ‘부계씨족공동체의 정치적 수장’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환웅에 관한 이야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의 원시사회상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이야기만큼 중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단군의 출생과 관련한 신화’를 다루면서 곰과 범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곰과 관련한 설화의 본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수 있다. 옛날에 곰이 썩 한타래와 마늘 스무개를 먹고 굴속에 들어가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드디어 사람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가 고조선건국이전 태고적부터 우리 조상들의 동물숭배관념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공신화였을것이다.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재래의 공설화를 모체로 하면서 그것을 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 단군의 출생신화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공설화의것이 그대로 채용된것도 있고 변형시킨 부분도 있으며 새로 첨가한 개소들도 있었을것이다. 해당기사들을 분석하면서 상세히 밝힐것이지만 그러한 변화의 일반적 취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우선 곰이 스스로 사람으로 되었다고 한 본래의 설화를 하늘신의 조화로되었다는 방향으로 꾸미게 된것이다. 그러자니 자연 곰과 천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서술들이 새로 끼여들게 되고 본래의 곰과 관련한 행적들이 천신에 의해 고안되고 제시된것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다음은 단군을 출생시키기 위한데로부터 곰녀자와 웅과의 혼인, 임신에 대한 서술을 새로 첨부하였다. 끝으로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공설화를 단군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건국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것이다. 결과 종래의 공설화에 반영된 사회상이 단군신화에 이르러서는 건국전야의 사회형편을 이러저러하게 반영하면서 일정한 변형을 거치게 되었다.(⑧)⁷²⁾

⑧에서는 공설화의 본래 모습을 ‘옛날에 곰이 썩 한타래와 마늘 스무개를 먹고 굴속에 들어가 백날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드디어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신화>의 창조자들이 건국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공설화를 <단군신화>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켰다고 논의하였다. 단군

70)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1)」, 『역사과학』 3호, 1988.

71)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1)」, 『역사과학』 3호, 1988.

72)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4호, 1988.

을 출생시키기 위해 웅녀와 환웅의 혼인, 임신에 대한 서술이 새로 첨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군신화>의 내용 가운데 곰과 범이 한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과,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썩과 마늘을 먹어야 했던 이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곰과 범이 《같은 굴에서 살면서》라는것은 동거생활을 표현한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곰과 범이 한굴에서 살았다는것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을수 없다. 그렇다면 곰과 범이 한굴에서 살았다는것은 무엇을 말하자는것인가 이 부분을 위의 문단과 관련시켜보면 곰씨족과 범씨족이 한개 종족을 이루고 같이 살았던 사실을 반영한것이었다. (중략) 그렇다면 곰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필이면 다른것도 아닌 썩과 마늘을 먹어야 하였는가. 사람의 조상이 곰이라고 믿었던 이 설화창조자들에게 있어서 곰이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 만능의 주재자인 하늘신을 몰랐던 그들은 그러한 힘을 그들자신의 생활자체에서 찾을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 대상으로 선택된것이 썩과 마늘이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의 민간치료약재로 전해지고있었다. 대식물학에서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알려진 썩은 일명 약썩이라고 할 정도로 약재로서 그 가치가 널리 알려져있다. (8)73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범은 씨족의 이름이며, 곰과 범이 한 동굴안에 살았다는 것은 곰씨족과 범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곰이 썩과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썩과 마늘이 민간치료약재로 전해지고 있던 것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웅녀(곰녀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곰녀자》란 곰씨족의 녀자를 가리키는것이지만 실상은 그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씨족사회에서 매개 성원은 자기가 속한 씨족의 명칭으로 표시되는 이름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름을 보고서도 그가 어느 씨족에 속하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 (중략) 여기로부터 다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추정해볼수 있다. 그 하나는 종족간의 연맹이라는 사실이 이와 같은 일종의 《혼인담》을 통하여 반영되었을수 있다는것이다. (중략) 다른 하나는 일부일처제가족의 존재를 보여준다는것이다. 학자들은 웅이 《잠간 변하여 혼인》했다는 글밭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그 어떤 대우혼을 련상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종족성원들이 결혼하는 그러한 단계에서의 가족은 벌써 일부일처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이미 일부일처제가족단계에로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단군의 출생신화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고조선발상지의 본고장에는 곰씨족과 범씨족으로 구성된 종족이 살고있었다. 종족 안에서 곰씨족의 세력이 우세하여 종족수장의 지위를 곰씨족의 귀족들이 차지하였다. 이 종족의 귀족들은 하늘신을 숭배한 웅이 거느린 이주민종족과 연합하여 종족동맹을 형성하였다.(8)74

위의 인용문에서는 ‘곰녀자’가 실제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웅녀와 환웅의 혼인을 ‘곰씨족 여자가 이주민종족의 주장에게 청혼하여 서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일부일처제 가족단계로 이행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㉔단군의 건국기사’와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었는데 그곳을 또한 궁궐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하였다. ...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 신화에서 전하는 단군의 건국기사이다. 단군이 죽은 뒤 아사달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즉 단군이 《조선》이란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우고 처음에는 평양성에, 나중에는 아사달(궁궐산, 금미달)에 도읍을 정하였다는것은 그 어떤 신화적요소도 없는 사실그대로의 역사기록이다. 그 해석에서 주되는 것은 《단군》, 《평양성》과 《아사달》, 《조선》이다.(9)75

㉔에서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군’, ‘평양성’, ‘아사달’, ‘조선’이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하여 단군의 건국기사가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73)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4호, 1988.

74)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2)」, 『역사과학』 4호, 1988.

75) 강인숙, 「단군신화와 역사(3)」, 『역사과학』 1호, 1990.

단군신화에 나오는 《아사달》이나 그것의 별칭인 《궁출산》, 《금미달》과 통하는 《안시성》, 《개모성》, 《웅악성》과 같은 지명들이 룡동반도에 집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조선의 건국역사의 일단을 전하는 단군신화의 진실성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아사달의 위치를 찾을수 있는 근거까지 제공해준다.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미루더라도 어쨌든 고조선의 발상자인 아사달의 위치는 이상의 초보적인 해석에 근거하더라도 룡동지방에서 찾는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⑨에서는 주로 단군의 건국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이 지리적으로 북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3) <단군신화>의 윤색 과정에 대한 연구

이번에는 <단군신화>가 새로이 윤색되어 나간 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②에서는 시대가 변하면서 개작된 <단군신화>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노예 소유국 국가의 흔적이 바로 신화로써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 봉건 문인들에 의하여 개작 윤색되어 첨가된 부분도 있다. 우리는 특히 이러한 신화 아닌 첨가된 부분들에 대하여 노동 계급적 선을 세워 비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후기 봉건 문인들의 손에 의하여 윤색된 것은 13세기 이승휴의 『제왕운기』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군을 계급 국가의 왕으로 찬양하면서 고조선 노예 소유자 국가는 물론 그후의 봉건 국가의 출현을 신성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 신화」 연구에서는 신화의 원초형을 후기 봉건 문인들에 의하여 윤색 첨가된 부분과 똑바로 구분하여 갈라내는 동시에 원시 및 고대 주민들의 소박한 사고방식과 환상의 산물인 신화를 봉건 통치 계급의 지배적 목적에 복종시키려는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 비판하여야 한다.(276)

위의 글에서는 봉건 문인들이 봉건 통치 계급의 지배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단군신화>에 첨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후대에 윤색된 내용은 원래 신화의 내용과 철저히 분리하여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논의들에서는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점차 사라졌다. ⑥은 <단군신화>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적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집》 22권, 51페이지)

《조선(고조선)》의 건국당시나 그 직후시기부터 단군신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 실리기까지 어떤 부분은 전해져오는 도중에 빠져버려서 《고기》에 실리지 못한것도 있었을것이고 또 어떤것은 후세에 서로 덧붙여졌거나 본래 있었던것이 후에 더 윤색된것도 있을것이다. 이런 변화를 거쳐온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기》의 단군신화이다. 이와 같이 변모된 현존 단군신화에서 그 본래의 모습을 성하게 되살려내는것은 힘든 일이지만 근사하게 그려볼수는 있을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후세에 오면서 덧붙여졌거나 변모된 부분을 가려내는것이 필요하다.(6)77)

위의 인용문에서는 변모된 <단군신화>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군신화>의 내용 가운데 후대에 변모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환인》이란 칭호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포괄하는 도리천의 주재신을 가리키는 신흠크리트말(범어)을 한자음으로 《석가제한이다라》라고 표기한다. 이 짧지 않는 합성어의 뜻은 《석가》는 《능하다》, 《제한》은 《하늘》, 《인이다라》는 《임금》을 각각 의미한다. 통털어 그것은 《하늘을 주재하는 임금》이란 말이다. 이것을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면 《천제》가 되고 현대 우리 말로는 《하느님》이 된다. 이와 같이 《환인》은 《하늘》을 가리키는 범어 《제한》의 마지막자와 《임금》을 뜻하는 《인이다라》의 첫글자를 합쳐 만든것이므로 그 어원이 불교에서 유래하였다는것은 근거있는 이야기로 된다.(6)

76) 김일성종합대학 편, 임현영 해설, 『조선문학사』 I,天池, 1982, 29~30쪽.

77) 강인숙, 「단군신화의 근사한 원형」, 『역사과학』 4호, 1987.

위의 인용문은 환인과 관계된 이야기는 본래의 <단군신화>에는 없던 것인데 후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첨가되었다는 내용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는 ‘환인’ 외에도 ‘《삼위태백》의 《삼위》, 《천부인 3개》 등이 불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논하고 있다.

이상에서 《환인》이나 《삼위태백》의 《삼위》, 《천부인 3개》 등이 불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았다.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이상에서 본 신화의 첫부분이 원래 신화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후세에 첨가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략) 이것은 오랜 형의 건국설화일수록 주인공의 선대계보를 기껏해서 아버지, 어머니 한세대에 국한시키지만 후세에 오면서 건국 시조를 내세우기 위해 그 조상계보를 늘리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몽전설의 이와 같은 예로 미루어보아 단군신화도 처음에는 단군의 1대선조 환웅이나 곰녀자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내용구성으로 보아 단군신화에서 환인관계기사는 전혀 불필요한 군더더기이다. 그것없이 환웅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신화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후세에 승려들의 손에서 이미 전해져오던 단군신화에 기초하여 새로 꾸며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6)

⑥에서는 환인관계기사는 전혀 불필요한 군더더기인데 후세에 승려들의 손에 의해 새로 꾸며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군신화>가 처음에는 환웅이나 곰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인데, 건국시조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 조상의 계보를 늘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③에서는 변모된 <단군신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설화의 창조자들은 천제에 관한 사상적지향을 반영함으로써 시조왕을 신격화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건립과 저들의 권력이 이른바 <하늘>의 명시에 의한 운명적인 것으로 미화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의 건국설화인 <단군신화>가 원시시대에 창조된 공토담신화를 주되는 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었으나 계급이 분화되고 계급적 지배가 실현되고 있던 사회력사적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작되었으며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시대의 사상과 내용이 보충되고 윤색됨으로써 원시씨족공동체의 생활로부터 계급국가형성이후의 여러 단계에 걸치는 사회생활과 사회의식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7)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신화>가 사회·역사적 현실의 요구에 따라 개작된 것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급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단군신화>에 새로운 사회의식이 반영되게 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②에서의 비판적 태도와 비교가 된다.

⑬에서도 <단군신화>의 개작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단군설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부단한 보충윤색과정을 거쳐 보다 풍부화되었다.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왕이 된 후 여러곳에 도움을 옮기며 1500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 인간이 1500년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것은 1500년간 존속한 단군왕조(전조선)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설화적으로 꾸며지면서 《단군신화》에 보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군제라든가 단군릉수호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들은 중세나 근대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으며 이러한것들을 놓고도 단군설화가 고대시기에 창조된후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적인 발전과 함께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특히 조선의 낯과 기상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끝없이 숭상해온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사적을 백두산과 결부시킴으로써 백두산을 단군민족의 상징으로 높이 찬양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한껏 높였다. 실로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숭상하여 창조된 단군설화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민족의 고유한 설화유산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9)

⑬에서는 <단군신화>가 오랜 세월동안 윤색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풍부해졌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들이 설화적으로 꾸며지면서 민족적 근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군신화>가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적인 발전과 함께 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에서 윤색된 <단군신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점차 긍정적

78) 정홍교, 『조선문학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55쪽.

79)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 2004.

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단군’ 관련 작품들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보면서 ‘단군’의 공적을 기리는 작품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왔다. 단군과 관련한 작품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과거에 이미 창작된 시작품들을 단군과 관련지어 분석한 논의와, 민간에 구전되어 온 단군 관련 설화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

1) 단군과 관련한 시작품 연구

다음의 글은 단군을 노래한 고전시가유산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단군에 대한 시가들은 고대에 이어 중세 전 기간 끊임없이 창작되어왔다. 고구려와 발해시기 문헌사료의 인멸로 하여 단군을 노래한 시가들은 거의 원존시가유산 그대로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단군에 대한 제사의식이 국가적관심속에 여러 갈래로 널리 진행되고 다양한 역사문헌들이 편찬되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적지 않은 작품들이 나왔으리라고 짐작된다.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단군관계시가들은 대체로 고려이후시기에 창작된것들이다. 고려시기는 중세 조선민족의 발전력사에서 국토통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의 시기로서 고려사람들은 전례없이 양양된 민족적분위기속에서 우리 민족사의 자랑스런 전통을 노래한 작품들을 적극 창작하였다. (중략) 리조시기 단군을 칭송한 작품들은 많은 경우 단군이 태어나 건국업적을 이룩한 평양의 역사유적유물들을 제재로 삼은것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허균의 시 《구월산 단군사》, 서산대사의 시 《단군대에 올라》, 권필의 시 《마니산 천단에 올라》, 김춘택의 시 《참성제단》 등에서는 묘향산과 구월산, 강화도 등 전국각지에 있는 단군시기의 유적유물을 통해 단군에 대한 찬양을 보다 구체적인 정서속에 토로하기도 하였다.⁸⁰⁾

위의 글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단군을 노래한 시작품들을 창작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실제 작품을 많이 인용하면서 단군을 노래한 시들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반영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의 글도 단군의 공적을 노래한 중세의 시가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중세단군관계시가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기강을 마련하였으며 문명시대에도의 길을 개척한 단군의 역사적공적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 주제 작품들은 단군의 역사적공적을 찬양하는데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그 지향은 다양하게 표현되고있다. 중세단군관계시가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은 구체적으로 단군의 출생, 건국실현과 문명시대에도 이끈 단군의 공적에 대한 찬양으로 표현되고있다. 작품들에서는 우선 단군의 출생에 대하여 찬양하고있다. 중세문인들이 단군의 출생을 찬미하게 된것은 자기 민족의 시조가 뭇사람들과 구별되는 뛰어난 인물이며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자로 될수 있었다는 민족적인 긍지와 숭배심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⁸¹⁾

위의 글에서는 ‘단군관계시가문학’을 하나의 장르처럼 보면서 중세의 여러 시인들이 단군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품을 활발히 창작했다고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일제의 통치를 받는 시기에 김준이라는 문인이 단군을 찬양하는 시작품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논의한 글이다.

김준의 문집에는 7언절구인 《단군조선》, 《좋은 세월에 민속도 아름다웠어라》, 《단군이 팽이를 시켜 살림을 꾸리다》, 《단군이 아들 부루를 도산에 보내다》, 《참성단》들과 5언률시 《단군을 우러러 추모하는 노래》와 같은 단군관계 시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김준은 이러한 작품들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연구에 기초하여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숭배심을 격조높이 구가함으로써 동시대인들에게 일제의 야만적인 민족말살책동에 민족적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맞서나가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의 작품들에는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과 민족의 원시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배심이 량만적인 정

80)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노래한 민족고전시가유산」, 『민족문화유산』 3호, 2004년.

81) 장광혁, 「중세 단군관계시가문학에서 단군의 역사적공적에 대한 찬양」, 『조선어문』, 2호, 2005년.

서로 구가되고있다.⁸²⁾

단군과 관련한 시작품들이 민족자주정신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다음의 글에서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대중교의 창시자 라철이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찬양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우리 민족에게 단군민족의 애국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을 반일구국항전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정서적주장은 시인이 1909년 3월 6일에 지은 《단군성덕가》에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작품은 모두 6개 분절로 이루어져있다. 작품의 제1절에서는 단군의 건국공적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의 정이 드높은 정서적양상으로 짙게 채색되어있다. 제2절에서는 백성들에게 농경생활의 혜택을 안겨주고 입고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준 단군의 공적을 노래하고있으며 제3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불리용방법과 병충해를 막는 방법, 병치료를 마련하여 《우리 자손들을 살려준》 단군의 구체적인 공적을 노래하고있다. (중략) 당시 일제가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왜색, 왜풍을 강요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동조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계변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민족정신과 존엄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던 조건에서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배달겨레 모든 민중》이 일치단결하여 민족정신을 되찾고 단군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나가자는 시인의 주장은 더없이 귀중하고 찬양할만한것이다.⁸³⁾

라철의 시는 비록 단군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제한성도 있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단군민족의 기상을 떨쳐 나가려는 애국정신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단군과 관련한 시작품 연구는 민족정신 내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2) 단군 관련 구전설화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는 <단군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군과 관련한 수많은 구전설화들이 채록되어 있다.⁸⁴⁾ 한 예로 <함정에 빠졌던 단군>이라는 전설⁸⁵⁾은 단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달족의 족장이 되고 주변의 씨족들을 하나하나 통합하여 그 위세와 명망이 천하를 진동하던 바로 그 무렵에 있는 일에 대한 것으로, 단군이 적군이었던 신지를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만들고 신지의 누이동생인 연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민간구전으로 전해온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단군설화유산은 민간구전으로 보다 풍부하게 전해지고있다. 민간구전으로 전하는 단군설화유산들은 단군의 일대기를 폭넓게 담고있을뿐아니라 단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신앙의식도 보여주고있다. 그가운데는 《아사달(아사뽕)과 단군성동》, 《단군

82) 리해연, 「<인물소개> 애국적인 문인 김준과 단군관계시문학」, 『민족문화유산』 3호, 2005년.

83) 리해연, 「<인물소개> 대중교의 창시자 라철과 단군찬양시가문학」, 『민족문화유산』 1호, 2005년.

84)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학자 이재원은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단군릉 발굴 전에는 단군전설이 극히 적었으나 발굴 이후에는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설화집이나 그림책 형식으로 널리 홍보되었는데 내용의 특징은 단군신화에는 표현되지 않은 주로 단군 생존 때의 이야기가 많았다. 즉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부족장 또는 임금 때의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재원은 북한에서 단군전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단군릉 발굴 결과 단군조선의 시작이 기원전 3000년경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 중심이 평양이었다는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확립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만한 수많은 단군전설이 요구되었다고 본다. 전설은 신화보다 실제성을 입증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단군전설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홍보하지 않고 전설의 현장을 실제 확보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005, 314쪽.)

85) 「함정에 빠졌던 단군」, 『민족문화유산』 3호, 2001년.

의 공부터), 《무술터-홍산》 등과 같이 단군의 출생과 성장을 내용으로 한 설화유산들이 있다. 이 설화들에서는 단군이 하늘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장차 임금으로 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글공부와 무술을 닦으면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신화 전설적으로 형상하였다. 《구비리와 왕림고개》, 《마명리》, 《가사녀왕봉》 등은 단군에 의한 고조선건국과정을 보여주는 설화유산들로서 여기에서는 출중한 지략과 용맹, 뛰어난 인품을 지니고있는 단군이 여러 종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대하여 전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설화들을 통하여 고조선국가의 형성경위를 어느정도 가능해볼수 있다. 민간구전으로 전하는 단군설화유산들에는 또한 《장장평에 수도를 옮기다》, 《백날개》, 《단군의 유언》 등과 같이 나라를 세운 단군이 정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들과 《별학터》, 《백운대》, 《말묘》를 비롯하여 단군의 사후에 일어난 신비한 현상들을 이야기한 설화들도 있다. 그러가하면 《국사당》, 《단군사당에 깃든 이야기》, 《개미가 없는 단군릉》 등과 같이 단군제사를 지내고 단군릉을 보존관리하며 지켜온 우리 인민들의 신앙의식과 활동을 내용으로 한 설화유산들이 있다. 단군의 생애와 활동, 사적을 말해주는 설화유산들은 이밖에도 많다.⁸⁶⁾

위의 인용문에는 단군의 출생과 성장을 내용으로 한 설화작품들, 단군의 출중한 지략과 용맹, 인품을 보여주는 설화작품들, 단군이 정사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화작품들, 단군의 사후에 단군제사를 지내고 단군릉을 보존해온 인민들의 신앙의식과 활동을 내용으로 한 설화작품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글에서도 단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강동에는 첫 건국시조 단군의 출생이라는 비상한 사건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두 마리의 닭이 소리높이 울다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쌍계봉 전설이 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는 당시로 말하면 천신족 족장이라는 최고의 문벌출신의 환웅과, 꿈을 토론탐신으로 하는 부족장의 딸과의 사시에서 태어났으며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튼튼히 자라나고 소년시절부터 칼쓰기, 창쓰기, 활쓰기, 말타기 등 무술훈련에 힘써서 무예에서도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장성하였다. 강동에는 단군이 말타기 무술훈련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큰 산의 초목이 다 없어졌다는 홍산(붉은 산)전설도 있고 구월산에는 단군이 탄 말발굽자리바위가 삼성사아래에 있으며, 또 패엽사 앞산에는 그가 도를 닦았다고 전하는 수십길의 높은 벼랑을 이룬 단군대의 한쪽에 그가 앉은 곳이라는 음쪽 패인 자리도 있다. 묘향산의 단군대에는 그가 건너편 높은 바위기둥을 괴껴삼아 활쓰기련습을 하였다는 천주석도 있다.⁸⁷⁾

위의 인용문은 강동 지역에서 전해지는 단군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업적과 관련한 전설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태백산(대박산)이 강동지방에 있기 때문에 단군관계설화가 깃든 단군굴, 단군못, 단군동, 단군전동, 아달산, 쌍계봉 등이 강동지방에 있다’⁸⁸⁾라고 논의하였다.

북한에서 채록된 단군 관련 설화는 주로 북한의 지명이나 지역과 관련한 전설이다.

2.3. 북한에서 ‘단군’에 주목하는 이유

북한에서는 <단군신화>뿐 아니라 ‘단군’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서 ‘단군’은 중요한 연구 대상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민족의 조상으로 숭배하여왔으며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문명시대에 들어섰다고 자부하여왔다.⁸⁹⁾

이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첫 임금으로 된 사람이 단군이였다. 그러므로 단군은 우리 민족사의 첫 개국시조였으며 문명시대 우리 민족의 원조상이었다고 할수 있다.⁹⁰⁾

위의 인용문들은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6) 오영식,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단군설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 2004년.

87) 손영중, 단군학회 역, 「단군조선의 성립」,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 지식산업사, 2005, 261~262쪽.

88) 손영중, 앞의 글, 261쪽.

89) 최인철,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과 고조선」, 『민족문화유산』 4호, 2005년.

90) 강인숙, 「단군에 대한 이야기(1)」, 『천리마』 10호, 1993년.

북한에서는 단군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단군릉의 발굴 및 개건 사업을 통해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단군이 조선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확증된것만큼 단군릉을 건국시조의 무덤답게 잘 개건하여야 합니다.》⁹¹⁾

종전에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⁹²⁾

평양은 원시조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의 창업을 이룩하고 죽어 묻힌 민족의 성지이고 고대문화, 고대국가의 발상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오래동안 우리 인민들속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전설적인 인물로만 전해져오던 단군의 유골이 평양에서 발굴됨으로써 단군이 역사에 실지로 생존하였던 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⁹³⁾

북한에서는 단군릉 발굴로 인하여 단군이 조선민족의 원시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모든 동포를 단군의 후손이라 언급하면서 ‘단군의 자손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고 한다.⁹⁴⁾ 단군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전에 단군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인식되었던 이유를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다.

일제침략자들이 단군과 조선고대사 말살책동을 저들의 대조선식민지정책의 한 고리로 삼은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 지배를 손쉽게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로 된것은 단군이 동방에서 첫 국가를 세운 이래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면서 곳곳이 살아온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역사적 바탕을 둔 우리 인민의 강한 민족자주의식이였다. ⁹⁵⁾

위의 인용문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에 민족의 자주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단군말살정책에 의하여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인식해 오던 전통적인 관념이 사라지고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 허황된 존재로 보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단군릉이 발굴됨으로 인해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되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며 고조선의 건국시조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으로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랑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게 되었으며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더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⁹⁶⁾

위의 인용문에서는 단군릉의 발굴이 단군의 실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단군릉의 발굴은 단군의 역사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한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는 단군릉의 개건이 북한에서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

91) 「불멸의 업적 전하는 단군릉」, 『민족문화유산』 1호, 2001년.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단군릉발굴보고」,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11쪽.

93) 최광호,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 평양은 단군이 나라의 창업을 이룩한 민족의 성지」, 『민족문화유산』 3호, 2006.

94) 이재원, 「북한 문학사에 서술된 단군신화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제6호, 교양교육연구소, 2001, 26쪽.

95)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84쪽.

96) 박시형, 「일제의 단군말살책동」, 『단군과 고조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4, 89쪽.

는 단서가 발견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군릉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민족의 재보로 훌륭히 꾸리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구상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무어주시고 륭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여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비분에 울고있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단군릉개건에 참가한 일군들과 학자들, 건설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으로 불러일으키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그해 개천절을 계기로 단군릉개건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83(1994)년 10월 단군릉개건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⁹⁷⁾

위의 인용문을 통해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이 앞장서서 단군릉을 개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있을 때 김정일이 김일성의 뜻을 이어 단군릉을 복구하고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죽은 김일성과 단군의 형상을 연결 짓고자 한 북한의 정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⁹⁸⁾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⁹⁹⁾

위의 인용문에서는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단군과 김일성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단군과 김일성의 형상을 일치시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이 고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단군’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가 ‘수령형상화’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⁰⁰⁾

3. 남한 연구와의 비교

북한에서는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해왔다.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단군과 관련된 연구들은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역사적으로 단군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단군과 관련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해 왔는데, 그중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는 구비전승 된 단군설화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이러한 북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될 수 있는 남한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단군신화>와 역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97) 신재복, 「단군릉과 승령전, 삼성사의 회화복원」, 『조선예술』 7호, 2008년.

98)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학자 이재원은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소식과 1995년 단군릉 개건 준공식 소식을 함께 언급하면서 ‘사망한 김일성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초월한 신적인 존재, 즉 단군과 같은 반열에서 신화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찬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북한체제의 중심이던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후계체제의 정통성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죽은 김일성을 단군과 같이 영생불멸하는 신화적 존재로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했다.’고 논의하였다.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단군학회, 280쪽.)

99)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해설 :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조선예술』 7호, 2007년.

100) 전영선은 ‘수령형상은 노동계급 문화예술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어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게 하여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인민을 교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역락, 2002, 149쪽.)

남한에서의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전공이나 연구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단군신화>를 ‘한국사에 있어 최초의 정치적 사회인 고조선의 성립을 전하는 자료’¹⁰¹⁾ 또는 ‘한국사의 첫장을 여는 개국과 민족 시조에 대한 역사’¹⁰²⁾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의 역사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⁰³⁾

윤경수는 「단군신화의 신화성과 역사인식」에서 단군의 실존을 고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단군신화>의 신화적 성격과 사회적 고증을 고찰하였다.

단군 일족은 엄연히 천신족이었다. 더구나 단군이 부족연맹으로 통일하던 시대에는 동물토텐이 숭배되던 시기였다. 곰과 범이 환웅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고자 청했을 때 100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않고 썩고 마늘만을 먹고 있으면 환인될 수 있다는 신화의 기록은 그 시대에 동물 토텐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범이 중도에서 동굴생활을 포기하고 곰만이 21일 동안 견디어 웅녀로 변신한 것은 그 시대 환웅의 결혼이 곰부족녀와 범부족녀와의 삼각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환웅이 곰부족녀와 결혼하였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것이다. 환웅은 천신족이었으므로 지상신족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 지상족인 곰부족녀의 동물성을 배제시킨 후 신성성을 고취하기 위해 지모신으로 격상시킨 후, 또한 이부체제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간략히 말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환웅과 웅녀와의 관계는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천장지구와 같은 영원함을 구현한 것이다.¹⁰⁴⁾

그는 단군의 생존시에는 부족마다 동물토텐을 숭배했으므로 <단군신화>에서의 곰은 곰부족녀이고 범은 범부족녀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단군이 씨족사회를 통일하고 단군조선을 건국하면서 신적 존재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단군신화>가 하늘곳나라곳으로서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논하였다. <단군신화>를 통해 당시의 원시생활상과 새로운 계급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상을 읽어내려는 관점은 북한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처럼 단군을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보려는 인식은 남한에서도 통용되어 있다. 그중 박정학¹⁰⁵⁾은 「단군에 대한 인식 혼란에 관한 연구」에서 단군을 신화적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단군신화’라는 용어를 문제 삼고 있는데, ‘신화’라는 말 때문에 단군을 실존 인물이 아닌 신화적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식하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일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역사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단군신화> 연구가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성현경은 「단군신화의 문화적 연구」에서 ‘국문학자들이 단군신화를 순전히 문학적으로만 접근한

101) 서영대는 <단군신화>가 자료로서 갖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고조선에 관한 우리측 자료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조선에 대한 문헌자료는 대단히 빈약하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중국측 자료이다. (중략) 둘째, 한국사의 시조를 소급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중략) 셋째, 신화의 형식을 빌어 고조선의 성립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47~48쪽.)

102) 이필영, 「단군 연구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82쪽.

103) 김성환은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에서 특히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 ‘근대 사학의 수용 이후 단군 연구는 일인들의 부정론과 이에 대응한 신채호·최남선·손진태 등의 선구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는 이를 계승하여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축소·왜곡되었던 고조선사와 단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자에 따라 고조선사의 연구를 3~4기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데, 단군 연구의 동향 역시 이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김성환, 「단군 연구사의 정리와 방향」,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 140쪽.)

104) 윤경수, 「단군신화의 신화성과 역사인식」, 『단군학연구』 제2호, 단군학회, 2000, 75~76쪽.

105) 박정학은 “‘단군신화’라는 말은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없었던 말로서, 단군기록 속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기록 전체가 신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여기는 것을 ‘인식 혼란’이라고 하였다. (박정학, 「단군에 대한 인식 혼란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 제17·18집, 강원대사학회, 2002, 72쪽.)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바로 신화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신화는 문학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민속학·민족학·문화인류학의 연구 영역이기도 하다. 한편 신화는 원시인들 내지 고대인들의 세계관·역사관 등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의 역사철학·종교학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¹⁰⁶⁾라고 하였다.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조동일과 서대석의 논의도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동일은 <단군신화>에서의 ‘환웅과 웅녀의 혼인’이 역사적으로는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

환웅은 환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이자 수호신이라고 생각된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을 한 것은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뜻한다 하겠고, 그러한 전개는 해모수와 유화의 경우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 이주했다는 사실과 이주민의 자부심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환웅의 건국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핵심 부분을 이루고, 단군이야기는 오히려 부수적인 편이다. 환웅과 웅녀가 혼인해서 낳은 단군은 순탄하게 왕위에 올랐으며, 나중에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데까지의 일대기가 나타나 있으며, 극적인 사건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¹⁰⁷⁾

그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을 통해 환웅이 다른 곳에서 이주해왔으며, 이는 이주민의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단군신화>에서 환웅의 건국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에서 핵심 부분을 이루고, 단군이야기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서대석도 ‘단군’보다는 ‘환웅’을 <단군신화>의 주역으로 해석하였다.

실제 단군신화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존재는 환웅이다. 환웅은 신시를 개창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곰을 여인으로 변신시키고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게 하는 신성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환웅신화’라고 하지 않고 ‘단군신화’라고 하며 국조로 단군을 받들고 환웅을 받들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환웅의 신시 집단과 단군의 아사달집단이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신시의 2대 왕으로서 환웅의 왕위를 계승한 존재가 단군이 아니고 신시와 웅녀집단이 통합하여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조선의 시조로서 즉위한 존재가 단군이라는 것이다.¹⁰⁸⁾

그는 위의 인용문에서 <단군신화>에서 주역으로 활동한 존재가 환웅임에도 불구하고 ‘환웅신화’가 아닌 ‘단군신화’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환웅은 신시의 1대 왕이었는데 단군은 신시의 2대 왕이 아니라 신시와 웅녀집단이 통합하여 새로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조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단군신화>에는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조로 모셔지는 것은 단군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신성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군신화> 속에 감추어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단군신화>의 단군의 출생과 즉위에 관한 부분은 북몽골에서 도래한 천신숭배집단이 백두산 주변으로 이동하여 선주하고 있던 곰숭배 부족과 호랑이 숭배 부족을 복속시키고자 하였는데 호랑이 숭배 부족인 예족은 복속되지 않았고 곰숭배 부족만 복속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천신숭배집단과 선주했던 곰토텐집단이 통합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단군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⁰⁹⁾

그는 <단군신화>의 내용이 천신숭배집단과 곰숭배 부족, 호랑이 숭배 부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천신숭배집단이 백두산 주변으로 이동하여 선주하고 있던 곰숭배 부족과 호랑이 숭배 부족을 복속시키고자 하였는데, 호랑이 숭배 부족은 복속되지 않았지만 곰숭배 부족은 복속시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신숭배집단과 곰숭배 부족이 결합하여 조선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단군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106) 성현경, 「단군신화의 문화적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09쪽.

107) 조동일, 『한국문화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77~78쪽.

108)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3쪽.

109)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50쪽.

조동일과 서대석의 논의는 <단군신화>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읽어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구 관점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단군보다 환웅을 <단군신화>의 주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연구 관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환웅을 허구적인 인물로,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로 보기 때문에 단군을 중심으로 <단군신화>를 해석하고 있다.

3.2. 구전된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한 연구

북한에서 단군의 출생이나 활동과 관련한 수많은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전해지는 설화의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오히려 남한 학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재원은 북한에서 수많은 단군 관련 설화가 발견되는 이유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의 경우 실존을 강조하기 위해 5011년경 전으로 추정되는 단군의 뼈가 묻혀있는 무덤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한 이상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한 단군전설의 제시는 매우 절실했을 것이다.¹¹⁰⁾

그는 북한에서 단군릉 발굴 이후에 단군의 실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많은 ‘단군전설’이 새로 생겨났다고 논의하였다.

서영대는 북한에서 1990년과 1994년에 발간된 설화집에는 단군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1998년에 발간된 설화집에서는 43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최근 북한에서는 단군 관련 설화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단군 연구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우선 김정설의 『단군설화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43편의 단군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중략) 다음으로 2004년에 나온 조희승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사회과학출판사)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단군조선사를 개관한 것인데, 여기서는 단군조선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단군 관련 설화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북한에서 정리한 자료들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단군 관련 설화의 편수가 많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단군과 관련 깊은 평양과 구월산 지역의 설화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에 나온 김정설의 『평양전설』(사회과학출판사, 1990)과 1994년에 나온 석선영의 『구월산전설』(문학예술종합출판사)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단군 관련 설화가 한 편도 없다. 더구나 『평양전설』의 저자 김정설은 『단군설화집』의 저자이기도 한데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단군설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 발견되어 채록된 셈이 된다.¹¹¹⁾

그는 이렇게 단군 관련 설화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난 이유를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와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즉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민족의식 강화를 통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군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단군 관련 설화들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채록하였다는 것이다.¹¹²⁾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채록된 단군 관련 설화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뼈대가 되는 구전설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이재원은 북한의 단군 관련 설화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북한의 단군 관련 설화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화석화된 단군의 실체를 보다 생동감 있게 인식하려 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라고 평가하였다.¹¹³⁾ 많은 수의 단

110)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5, 288쪽.

111)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9, 157~158쪽.

112) 서영대, 「신화 이해의 역사적 변천-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13) 이재원, 「북한의 단군신화 인식에 대한 연구-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단군학회, 2005, 297쪽.

군 관련 설화가 북한에서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료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단군 관련 설화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서영대는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에서 손진태의 『조선민담집』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 등을 비롯한 몇몇 설화집에 채록되어 있는 단군 관련 설화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채록된 편수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1)단군의 출생 2)단군의 부인 3)단군이 한 일들 4)단군의 무덤 5)단군의 사후 6)단군의 자손 등으로 나누었다.¹¹⁴⁾

그가 소개한 남한의 설화집에 실려 있는 단군 관련 설화 중에는 남한에 속해있는 지역과 관련된 것이 많다. 강화도에 위치한 참성단과 삼랑성을 단군이 만들었음을 전하는 이야기¹¹⁵⁾, 단군이 묻힌 곳이 경기도 가평군이라는 이야기¹¹⁶⁾, 전남 보성에 단군의 일곱째 아들이 도술을 부리고 문학생들을 가르치던 거북바위가 있다는 이야기¹¹⁷⁾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채록된 상당수의 단군 관련 설화가 북한에 속해있는 지역과 관련된다는 것과 비교된다.

4. 결론

지금까지 <단군신화>와 ‘단군 관련 작품’들에 대한 북한의 연구 동향을 탐색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남한에서의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를 비교해 보면서 서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단군신화>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역사와의 관련성이었다. <단군신화>를 칭하는 용어의 변화에서도 <단군신화>의 내용을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단군신화>를 비롯한 단군과 관련된 연구들은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남한에서의 연구 관점 또한 북한의 연구 관점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특히 <단군신화>를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남한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이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북한만큼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에서 보다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단군을 연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단군릉의 발굴을 통해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을 검토해 본 결과 북한에서 단군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도 ‘수령형상화’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114) 서영대, 「단군 관련 구전자료의 검토」, 『단군학연구』 제21호, 단군학회, 2009, 135~169쪽.

115) 서영대, 앞의 글, 145쪽.

116) 서영대, 앞의 글, 148쪽.

117) 서영대, 앞의 글, 151쪽.

“단군신화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 비교”에 대한 논평

조배준(사상이념팀)

1. 필자의 연구방법과 내용 요약

이 논문은 ‘단군신화’가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단군신화에 관한 남북의 주요한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텍스트로 삼은 북한의 연구논문은 총 12편인데 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입니다. 이에 반해 남한의 연구자료는 모두 90년대 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남북에서 단군 관련 연구의 공통점은 남북 모두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군이 상징적 존재로만 인용되는 최근의 남한에 비해 북한은 90년대 중반 단군릉 개발 이후 단군을 실재했던 민족-국가의 시조로 인식하고 강한 정치적 목적, 즉 김일성 사후 수령형상화를 통한 세습 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 의문점과 아쉬운 점

쉽게 구할 수 없는 북한의 관련 자료들을 입수하여 꼼꼼히 읽고 분석한 필자의 성실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궁금한 점과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첨가합니다.

우선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신화, 전설, 설화’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 역사적 실재성의 수위를 분명히 언급해주고 글을 시작하였으면 이후의 논의를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남북 텍스트(연구논문 및 저서)의 동시대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납니다. 남북 모두 분단 이후 단군신화 연구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그 국민교육의 현재적 의미를 수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이 공통적 특징이라면, 남북의 연구사를 보다 통시적으로 구성하고 대조하기 위해 남한의 90년대 이전 자료와 북한의 90년대 중반 이후 자료를 더불어 살펴볼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북의 연구 통사를 보다 면밀하게 대조해 보면 이념 대결 국면이 강하던 90년대 이전에는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에서 단군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이용 욕구가 더 컸던 점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북한의 단군릉 개발 이전 초기 연구에서 단군신화를 교조화된 맑스주의적 역사발전론에 어떻게 대입하려고 했는지, 같은 시기 남한에서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수많은 단군릉-최근에는 일부 기독교도들에게 훼손 당하는-이 세워지며 ‘단군 할아버지’가 국민윤리·역사교육이라는 지배의 한 도구로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보다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한의 공휴일인 개천절(10월 3일)이 대중교와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임에 비해 북한에서는 97년 이후에야 단군릉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12가지 자료 중 마지막 자료(2004년)만 단군릉 이후에 나온 자료라는 점은 최근에 분명해진 남북의 연구동향 차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남북 모두 문학과 사학 영역에서 모두 단군신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의 대조점을 역사학과 국문학으로 세분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군이라는 인물과 단군신화의 역사성, 단군신화와 관련 문학작품에 관한 인식이 남북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 기준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며 비교하는 것도 글을 받

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북한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로서 그 의의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은 평양의 ‘단군릉’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소 뻔하고 빈약하며 본론의 내용을 짧게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필자가 언급한 그 ‘수령형상화’의 실태와 노동당 핵심의 ‘권력-지식’이 의도하는 인민 지배의 심리적 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줬으면 하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방법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글이 앞으로 텍스트(연구자료)에 대한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텍스트 간의 컨텍스트를 독해하고, 당시 남북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이라는 보다 큰 텍스트와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북한에서 단군릉 개발 이후에 쏟아져 나온 구전설화의 신빙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필자의 독자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월례발표회

왕연 2011. 3. 29

새마을운동의 추진기반과 추진주체에 관한 一考

- 충청북도 풍덕마을 사례를 중심

으로

1. 머리말
2.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
3. 현대 마을단위의 공동체조직
 - (1) 계몽회의 활동과 청년 지도자의 등장
 - (2)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
4. 정부차원의 지원과 추진력
 - (1) 새마을운동과 기존의 마을공동체 세력과의 관계
 - (2) 정부의 개입이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
5. 결론

1. 머리말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에서 ‘잘 살아보자’는 농민들의 의지와 이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은 새마을운동의 추동력이었고, 정부는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주관부문은 내부부였고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권위주의도 보인다.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거리가 먼 위로부터의 대중동원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에 강제적인 측면과 자발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양자를 모두 고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실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의 지원은 마을단위로 진행되었고, 개개인의 노력보다 마을 전체의 노력을 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결성된 마을단위의 공동체 조직 및 그들의 활동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다. 본문은 1973년도에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풍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추진기반과 추진주체를 밝히고자 한다. 1970년대에 우수새마을지도자로 표창을 받았던 이세영은 풍덕마을 새마을사업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풍덕마을 새마을운동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본문은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을 1차 자료로서 이용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여러 제3세계의 나라들한테 농촌개발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사업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제3세계 국가의 농촌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

풍덕마을은 전주이씨 진안대군파(鎭安大君派)의 세거지다. 마을 입구에 천연의 숲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고사했다. 1906년에 숲을 조성하고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7월에 이석호(李錫浩)·이희중(李羲鐘)·이희석(李羲哲) 세 사람의 주동 아래 방풍림계가 조직되어 공말과 속담말의 주민 30여 명이 가입했다.¹¹⁸⁾ 1907년 1월에 방풍림계 규약이 만들어져 “전 부락에 수재·화재·풍재 등을 방(防)하고 위생을 위주하고 생명을 보수(保守)해야 친목·근검·부업

장려를 목적”으로 했다. 계원은 풍덕 주민에 한하여 水害·旱害·火災·喪事 등을 당한 사람을 부조·구제해야 된다고 규정되었다.¹¹⁹⁾ 1906년부터 근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7명이 계장을 맡았는데, 대부분 장년 대에 계장을 맡아 한번 맡으며 10년 이상씩 직책을 수행했다.

<표1> 1906년~2001년 방풍림계 계장들의 명단과 인적 사항

대수	이름	재임시기	생년(초임나이)
1대	이석호	1906~1922 (17년간)	1866년생 (40세)
2대	이태영	1923~1932 (10년간)	미확인
3대	이동호	1933~1947 (15년간)	1886년생 (47세)
4대	이궁호	1948~1957 (10년간)	1888년생 (60세)
5대	이팔영	1958~1968 (11년간)	1904년생 (54세)
6대	이상덕	1969~1979 (11년간)	1928년생 (41세)
7대	이세영	1980~2001 (22년간)	1927년생 (53세)

1917년에 공말과 속담말로 진입한 사람은 벼 한 말씩을 계의 가입금으로 의무화 했다. 이것은 방풍림계원의 범위가 공말과 속담말의 전 주민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1924년부터 방풍림계는 계 재산을 저리로 계원에게 대여하고, 소방기 매입·공회당 건립·공동우물 수리 등을 위한 자금을 지급했다. 1937년 11월에 경로잔치를 베풀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이 된 계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¹²⁰⁾ 1926년 상풍덕 마을이, 1946년 구실곡이 가입하면서 방풍림계는 풍덕의 대동계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촌이었으나 계의 규약에 신분지배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마을 공유재산 마련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중점으로 두었으므로 방풍림계는 일종의 생활공동체로 볼 수 있다.

3. 현대의 마을단위의 공동체조직

(1) 계몽회의 활동과 청년지도자의 등장

해방 후 흐트러진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도처에 발견되었다. 1945년 10월에 풍덕마을 14~18세의 청년 16명이 계몽회를 조직했다. 이부영(24세)은 회장을 맡았고 이세영(18세)은 부회장을 맡았다. 그들은 문맹퇴치와 도박근절 운동을 전개했다. 1950년에 풍덕마을은 문맹자와 도박이 없는 마을이 되었고, 1957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에서 이세영은 성인교육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¹²¹⁾

마을 주민들을 깨우치고 퇴폐풍조를 없앤 다음에 계몽회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1945년 10월에 소작료 3·1제의 실시가 추진되자, 풍덕 계몽회원들은 소작인 회의를 열고 3·1제 소작료를 지주와 타협할 때까지 소작료 납부는 보류하라고 하면서 지주들을 설득해 나갔다. 1946년에 풍덕마을에서 3·1제가 관철되었다. 정부의 독려 없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3·1제를 관철했던 것은 주민들의 자량거리로 남아 있다.¹²²⁾

1947년 가을에 계몽회원들은 벼 수확고를 비밀리에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개인별 공출 배당량과 대조해 보니 불공정함이 확실했다. 계몽회원들이 이장에게 항의했고 이장은 계몽회에서 실시한 수확고 조사에 의해 재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¹²³⁾ 소작료 3·1제를 관철하고 공출배당량을 공정하게 배정함으로써 주민들은 자기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고 계몽회의 영향력도 확장되었다.

1949년에는 계몽회장 이세영(22세)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¹²⁴⁾ 1930~60년대 풍덕 이장들의 명단과

118)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46쪽.

119)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충북학자료선 7: 충청북도의 향약(追補)』, 2002, 60쪽.

120)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132쪽.

121) 『9일은 한글날 반포 511주년』, 『조선일보』 1957년 10월 9일자.

122)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75쪽.

123)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75~77쪽.

인적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풍덕 이장들의 명단과 인적 사항 (1930~60년대)

이름	재임 시기	생년(초임나이)	기타
이팔영	1937~1945(9년)	1904년생(33세)	1958~1968(54세) 방풍림계장
이금호	1946~1947(2년)	1888년생(58세)	방풍림계 창설 계원
이필영	1948(1년)	1907년생(41세)	
이세영	1949~1954(6년) 1957~1961(5년)	1927년생(22세, 30세)	1980~2001(53세) 방풍림계장
이동일	1955~1956(2년)	1921년생(34세)	
이복영	1962~1971(10년)	1928년생(34세)	

1937~48년 풍덕 이장을 맡은 세 사람은 대체로 30~50대 후반의 장년들이었다. 그러나 1949~71년에 이장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으며, 각자의 재임시기가 10년 이상이었던 이세영과 이복영은 모두 계몽회원이었다. 이세영의 이상 취임은 이장권의 세대교체를 의미했다. 이세영이 이장 직을 사임한 후 방풍림계장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장이 대표하는 정부 행정조직은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인 방풍림계와의 관계는 대립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2)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

1950년대 풍덕마을에는 청년층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1947년에 화재로 제내리 소방기가 소실되자 1950년에 재구입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방기가 다시 구입되자마자 제내리에 거주하는 20~30세의 청년들은 ‘제내 의용 소방대’를 조직했다.¹²⁵⁾ 1952년에는 풍덕마을의 부녀자들이 부녀회를 조직하여 절마·저축운동을 전개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되었다.

1957년 6월에 제내리 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1958년 1월에 첫 업무인 구매사업이 시작되었다. 읍력 설이 다가와서 제수를 개인에게 신청 받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었다. 1할의 이익금만 가산하고 공급해서 풍덕마을 주민 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와서 물품을 구매했다. 1958년 8월에 대부분을 받고 정미소를 매입했다. 그러나 같은 풍덕과 성동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 운영이 되었다. 바로 이 시점에 풍덕마을은 지역사회개발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으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범부락’으로 선정된 모든 마을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현지 지도원의 도움 아래 개발계를 구성하고 모든 세대주가 이 개발계에 참석해야 했다.¹²⁶⁾ 1959년 10월에 풍덕 지역사회 개발계가 조직되었다. 덕신초등학교 교사 이우영이 초대 계장, 이세영은 부계장을 맡았다.¹²⁷⁾ 당시의 방풍림계 계장·부계장·이장 등 마을 유지들이 평의원을 맡았다. 1959년에 풍덕마을은 제1차년도 보조사업으로 신촌에 있는 정미소를 풍덕으로 이전했다. 연간 40여만 환의 이익금을 보아 이 돈으로 채무를 청산했다.¹²⁸⁾ 1961년에 2차년도 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공장, 1962년에 3차년도 보조 사업으로 양어장을 건립했다. 공동이용시설로부터 얻어지는 공동기금이 연간 82만 4천원에 달했다.¹²⁹⁾ 이러한 마을개발사업에 전통조직 방풍림계는 후원조직으로서 마을 공유물의 마련이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124) 계몽회 초대 회장 이부영(1945~1946)은 2년간 맡아 보다가 이세영(1947~1958)이 해체 시까지 일을 맡았다.

125)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67~68쪽.

126) 허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미국의 한국 농촌사회 개편 구상」, 『한국사학보』17, 2004, 293쪽.

127) 「지역사회개발에 눈부신 활약, 살찌는 풍덕부락」, 『대한일보』1962년 10월 2일자.

128) 「풍덕동에서는 진안대군후손들 배여가구의 씨족부락 이룩, 한 푼의 빛도 없이 건전한 농협마련」, 『경향신문』1964년 11월 20일자.

129) 「지역사회개발에 눈부신 활약, 살찌는 풍덕부락」, 『대한일보』1962년 10월 2일자.

역할을 수행했다. 4-H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개발계에게도 경비를 제공했다.

4.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차원의 지원과 추진력

(1)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기존의 마을개발 세력

1970년 10월 2일에 내무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배부했고 10개 종류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권장했다. 1972년 3월 7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회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새마을운동 추진협의체가 조직되었다. 즉 중앙에는 중앙협의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협의회, 시군에는 시·군협의회, 읍·면에서는 읍·면추진위원회, 마을에는 이동개발위원회를 두는 것이었다. 새마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했다. 내무부와 시도, 시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으로 담당 구역에 현지출장하고 새마을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읍·면 공무원들은 1마을 1공무원에 따라 배치되었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수시로 마을에 출장했다. 새마을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문책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적인 규모로 조직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 아래 추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에 풍덕 지역사회개발계장 이우영의 제의에 따라 ‘지역사회개발계 서기’를 ‘사업부장’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개발계 서기라고 하면 개발계에 속한 업무만을 보는 것 같아서 범위가 좁은 것 같으므로 앞으로 새마을 사업 업무까지를 보자면 사업부장이라고 해야만 용어상으로도 명칭 상으로도 타당” 할 것이었다. 지역사회개발계의 지도자들은 새마을 사업에도 개입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1973년 초에 이상을은 이장, 이세영은 사업부장, 이자호는 새마을지도자를 맡게 되었다.

<표3> 마을개발위원회 임원과 역할

직위	이름	주요 업무
이장	이상을	출역 동원
사업부장	이세영	새마을 계획서 및 도면작성
새마을지도자	이자호	사업 감독

<표3>에서 확인되듯이 풍덕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주요업무는 사업 감독에 불과했다. 1973년에 풍덕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을 때도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이장도 아닌 이세영이 우수새마을지도자로 표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수직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동원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도 1950, 60년대의 마을개발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새마을운동의 주역으로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부의 개입이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

1971년에 새마을사업으로 풍덕회관이 건립되었다. 72년도는 이세영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해를 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년 11월에 풍덕마을은 기초마을로 선정되었다. 해방 후 축적해온 발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풍덕마을이 새마을운동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마을이 되는 것이다.

마을 진입로나 안길 확장을 위한 토지회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세영의 수기에 따르면 타 마을 주민의 토지는 매입했고, 풍덕 주민의 토지는 “그냥 허락을 받았”다.¹³⁰⁾ 1972년 12월 마을안길 확장공사에서 주민 이치영의 변소를 철거해야 되었다. 땅의 주인 이상필 지주가 승낙을 했으나 경작인 이치영이 심한 반대를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이세영에 의해 설득되었

130)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83쪽.

다.¹³¹⁾ 그러나 1973년 1월 풍덕마을 회의록을 보면 임원들은 “이치영 씨 밭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면이나 지서에 부탁”하기로 한 기록이 있다. 새마을운동에서 면직에 대한 두려움이나 승진에 대한 욕망으로 공무원들은 마을 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독려하고 비협조자들에게 압력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마을에서 토지기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났다. 1980년대 경기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 당시 이루어졌던 토지회사를 둘러싼 갈등이 조사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1973년 3월 7일에 중원군 새마을과장이 내방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멋지게 마무리”하라고 말하면서 풍덕마을을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육성해 보자고 했다. 시범부락이 되려면 마을에서 사업자금 1백만 원을 모아 놓아야 되고 사업규모도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월 16일의 마을총회에서 얘기를 했으나 주민들은 “무반응이었다”. 3월 18일 임원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업을 확장하면 영농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결국 3월 20일의 임원회의에서 이세영이 “중원군에서는 이미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내정하고 ……군하고 손잡고 새마을 사업을 힘차게 해보자”고 설득해서, 새마을 사업 확장이 결의되었다. 사업 확장 계획안은 마을회의와 임원회의 세 번을 거쳐서야 통과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민과 마을지도층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세영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과 손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1972년 3월부터 풍덕 주민들은 시범부락이 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5월 마무리 때까지 두 달 동안 내무부와 도·군의 새마을 격려차나 시찰차가 수십 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사업량이 방대해서 5월에 들어가서 사업의 7할도 완성하지 못 했다. 영농기가 다가와서 출역 문제가 심각했다. 새마을과장은 “새마을과장 이하 새마을과 직원들이 풍덕마을로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세영은 수기에서 “당시에는 새마을과 직원은 풍덕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군 트럭은 풍덕마을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서술했다.¹³²⁾ 5월 25일 마을총회에서 새마을 사업을 모심기 관계로 중지하고, 모든 논갈이와 모심기는 반별로 작업하도록 결정했다. 결국 농사는 제시간에 끝났다. 1973년에 풍덕마을은 새마을 시범부락, 이세영은 우수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되었다.¹³³⁾

1973년 이후 풍덕마을에서는 새마을 사업이 지속되었으나,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 포장·소교량 가설·회벽 바르기·주방개량 등 환경개선 사업들이었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보다 환경개선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했고 이농을 억제하지 못했다. 1973년 풍덕마을 총 인구는 557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251명으로 줄어들었다.

5. 결론

전통시대로부터 마을주민들은 동계를 조직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19세기 후 반촌의 동계는 계원들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해방 후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풍덕마을에서는 계몽회가 조직되었다. 청년들은 문맹퇴치·도박근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마을 행정 조직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1950, 60년대에 풍덕마을 주민들은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정미소·농산물가공 공장·양어장을 건립하고 마을 발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조직은 주민통합을 주도하고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뒷받침 역할을 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마을개발에 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편 수직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감독하도록 했다. 또 한편으로는 1950, 60년대 전국 각 지역에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인물들을 새마을운동의 주역으로 흡수했다.

131)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81쪽.

132)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306쪽.

133) 「새마을지도자대회」, 『경향신문』 1973년 11월 22일자.

1972년 말 풍덕마을은 자조마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971~72년에 풍덕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라기보다는 해방 후 축적해 온 마을발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3년 3~5월 풍덕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방대한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 농사를 못 짓고 남너노소 할 것 없이 새마을 사업만 했다. 결과로 1973년에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풍덕마을의 새마을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었다. 소득을 높이지 못하고 지출만 늘어갔으니까 농가부채가 급증하여 이농이 지속되었다.

청·장년들이 마을을 떠났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농촌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개발에 있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빚을 지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민 보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식은 불만만 일으켜 농촌 주민들의 개발의욕을 높이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도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 조직이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키우는 데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3월 월례발표회

왕연 2011. 3. 29

새마을운동의 추진기반과 추진주체에 관한 一考

- 충청북도 풍덕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

3. 현대 마을단위의 공동체조직

- (1) 계몽회의 활동과 청년 지도자의 등장
- (2)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

4. 정부차원의 지원과 추진력

- (1) 새마을운동과 기존의 마을공동체 세력과의 관계
- (2) 정부의 개입이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

5. 결론

1. 머리말

1960년대 도시와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농촌은 피폐해 있었고 도·농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었다. 대규모 이농에 따른 농업·농촌문제는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안정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불만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970년 10월에 내무부가 전국 33,267개의 행정이동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배부하여 마을 앞산 푸르게 만들기, 마을 앞길 넓히기, 퇴비장 만들기 등 10개의 마을 공동사업을 권장했다. 이로 부터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하에 각 마을에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촌주민들은 “무지와 빈곤 속에 살면서도 한번 잘 살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습성에 젖어 이웃 간의 협동심이 희박”하며, “음주와 도박으로 허송세월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다고 언급하고,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후 정부가 자금·자재를 지원해 주고 우수마을·우수새마을지도자를 표창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했다고 자부했다. ‘잘 살아보자’는 농민들의 의지와 이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은 새마을운동의 추동력이었고, 정부는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¹³⁴⁾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주관부문은 농림수산부가 아니라 내무부였고, 추진체계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읍면추진위원회·리동개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수직적 조직이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신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권위주의도 보인다. 이로 인해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거리가 먼 위로부터의 대중동원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³⁵⁾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에 강제적인 측면과 자발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양자를 모두 고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³⁶⁾

이러한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실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의 지원은 마을단위로 진행되었고, 개개인의 노력보다 마을 전체의 노력을 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와 마을의 결합관계, 새마을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와 새마을운동의 관련성은 마을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연구 성과 중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¹³⁷⁾가 있으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결성된 마을단위의 공동체 조직 및 그들의 활동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다. 본문은 1973년도에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체내리 풍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추진기반과 추진주체를 밝히고자 한다. 1970년대에 우수새마을지도자로 표창을 받았던 이세영은 풍덕마을 새마을사업에 관한 상세한 자료

134) 이에 대한 연구는 민상기, 「농민의 새마을운동 참여와 마을공동체 인식」, 『농촌경제』 제3권 제1호, 1980; 유태영, 「새마을운동과 농촌근대화」, 『새마을운동이론체계정립 I』, 1984; 김유혁,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이론체계정립 I』, 1984; 이행·박섭, 「한국 근현대의 국가와 농민: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정치학회 4월 월례발표회, 1997; 박진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2005; 한도현, 「새 국민, 새 공동체, 돌진적 근대: 새마을 운동의 대중동원」, 정성화 편,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선인, 2006 등이 대표적이다.

135)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47호,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등이 있다.

136) 이에 대한 연구는 황병주,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민중」, 『당대비평』 제12호, 생각의 나무, 2000; 오유석, 「농촌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유철규 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함께읽는 책, 2003;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김영미, 「평택 칠원 마을이 최우수 새마을이 된 사연」, 『역사와 현실』 제7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등이 대표적이다.

137) 브란트·이만갑, 『한국사회의 지역사회개발연구-4개 새마을부락의 사례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9; 에드워드 P. 리드, 「部落協同과 새마을運動」,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김영미, 「평택 칠원 마을이 최우수 새마을이 된 사연」, 『역사와 현실』 제7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등이 있다.

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풍덕마을 새마을운동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본문은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을 1차 자료로서 이용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여러 제3세계의 나라들한테 농촌개발의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사업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제3세계 국가의 농촌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

풍덕마을은 전주이씨 진안대군파(鎭安大君派)의 세거지다. 광무양안 때 마을에 가장 많이 거주한 성씨는 전주이씨(58.9%)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김씨(13%)였다.¹³⁸⁾ 토지는 총 32결 78부 3속이었는데, 논은 17결 89부 6속(54.6%)이었고, 밭은 14결 88부 7속(45.4%)이었다. 전주이씨는 19결 9부 3속(58.9%)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결 73부 6속(62.4%)을 경작하고 있었다. 10결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태호(李泰浩)·이만영(李萬榮)·이희서(李義瑞) 3명이었고 제내리 상위 지주 10위 안에 7명이 이씨였으며, 1~6위는 모두 이씨였다.¹³⁹⁾

풍덕마을의 뒤쪽은 산이 자리하고 있고 앞에는 평야가 있어 풍수지리상 기운이 새어나가는 형세였다. 마을 입구에 천연의 숲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고사했다. “수구가 막히면 부촌이 되고, 허하면 가난해진 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숲을 조성하고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어 가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06년 7월 이석호(李錫浩)·이희중(李義鐘)·이희석(李義哲) 세 사람의 주동 아래 방풍림계가 조직되었다. 공말과 속담말의 주민 30여 명이 가입하여 걸보리 한 말씩을 출자했다.¹⁴⁰⁾ 1907년 1월에 방풍림계 규약이 만들어졌다. “전 부락에 수재·화재·풍제 등을 방(防)하고 위생을 위주하고 생명을 보수(保守)해야 친목·근검·부업장려를 목적”으로 했다. 계원은 풍덕 주민에 한하여 水害·旱害·火災·喪事 등을 당한 사립을 부조·구제해야 된다고 규정되었다. 방풍림계는 육림사업 뿐만 아니라 풍수화재의 공동 방지, 주민 간의 친목 그리고 부업장려에도 목적으로 했다. 1906년부터 근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7명이 계장을 맡았는데, 대부분 장년 대에 계장을 맡아 한번 맡으며 10년 이상씩 직책을 수행했다.

<표2> 1906년~2001년 방풍림계 계장들의 명단과 인적 사항

대수	이름	재임시기	생년(초임나이)
1대	이석호	1906~1922 (17년간)	1866년생 (40세)
2대	이태영	1923~1932 (10년간)	미확인
3대	이동호	1933~1947 (15년간)	1886년생 (47세)
4대	이공호	1948~1957 (10년간)	1888년생 (60세)
5대	이팔영	1958~1968 (11년간)	1904년생 (54세)
6대	이상덕	1969~1979 (11년간)	1928년생 (41세)
7대	이세영	1980~2001 (22년간)	1927년생 (53세)

한편 방풍림계에는 계장·부계장·서기·회계·회계감독 각 1인, 간사 10인, 평의원 15인이 있고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 1말을 출자해야 한다. 계원은 매년 11월 5일로 정해졌다.¹⁴¹⁾ 해방까지 방풍림계의 주요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8) 1945~1980년의 인구동향을 보면 전주이씨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였다.

<표> 풍덕마을의 인구동향 (1945~1980)

연도	호구	전주이씨	비율(%)
1945	74	62	83.8
1952	97	71	73.2
1960	92	75	81.5
1965	89	72	80.9
1973	80	74	82.2
1980	87	70	80.5

출전: 『주덕읍지』, 주덕읍지편찬위원회, 2007, 951쪽; 이세영, 『방죽안 인물지』, 서울문화인쇄, 2003, 48쪽에서 재작성.

139) 김의환, 「충주 풍덕마을의 모습과 농민층의 토지소유: 전주이씨 진안대군파 동족마을 사례」, 『역사와 실학』 제42집, 207~211쪽.

140)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46쪽.

141)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충북학자료선 7: 충청북도의 향약(追補)』, 2002, 60쪽.

<표1> 방풍림계의 주요활동 (1907~1943)

연도	주요활동
1907. 3	매입한 땅(제내리 306번지 논 164평)에 숲을 조성하고자 식수함.
1917. 11	공말과 속담말로 전입한 사람은 벼 한 말씩을 계의 가입금으로 의무화 함.
1924. 11	방풍림계 재산을 식리 연 5할로 정함
1926. 11	상풍덕 마을 가입
1927. 12	이자율을 현곡은 연 5할, 현금은 4할로 정함.
1928. 12	제내리에서 소방기 구입함. 풍덕에서는 계에서 반액 50원을 지급함.
1931. 11	이자율 현곡 연 4할, 현금 3할 5푼으로 정함
1932. 11	제내리에 상하동 합자로 공회당 세움. 풍덕마을은 방풍림계에서 반액을 지급. 이자율 현곡 연 3할, 현금 연 2.5할로 정함. 장록리 383번지의 논 1524평(600원)을 매입.
1936. 11	사락리 242번지의 밭 475평과 동 243번지의 논 616평을 380원에 매입.
1937. 11	경로잔치를 베풀고, 공사립 소학교 학생 35명에 학자금 153원 지급.
1938. 11	공동우물 6개소 수리비(210원)를 지급. 소학생 36명에게 244원 86전을 학자금으로 지급. 장록리 209번지의 논 539평을 325원 65전에 매입.
1939. 10	소학생 36명에게 216원을 학자금으로 지급.
1940. 11	소학생 23명에게 115원을 학자금으로 지급.
1941. 10	소학생 23명에게 116원을 학자금으로 지급.
1942. 10	소학생 32명에게 벼 1,600근을 학자금으로 지급.
1943. 10	소학생 31명에게 171원을 학자금으로 지급. 이자율 연 2.5할로 정함.

※ 출처 :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207~209쪽.

1906년 11월에 계원들의 출자로 논 164평을 매입하고 다음해 3월에 숲을 조성했다. 1917년에 공말과 속담말로 전입한 사람은 벼 한 말씩을 계의 가입금으로 의무화 했다. 이것은 방풍림계원의 범위가 공말과 속담말의 전 주민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1924년부터 방풍림계는 계 재산을 계원에게 대여하고 논과 밭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식리를 통해 계전을 늘리고, 일정한 규모에 이르면 전답을 장만하여 소작을 부치는 것은 전통적인 계 재산의 증식 방법이었다.¹⁴²⁾ <표2>에서 확인되듯이, 방풍림계의 이자율은 1924년 5할, 1927년 5할(현금 4할), 1931년 4할(현금 3.5할), 1932년 3할, 1943년 2할, 장기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 보인다. 2~5할의 대출이자율은 당시 사채의 이자율에 비해 낮은 것이었다.¹⁴³⁾ 계의 식리활동은 식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종의 복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풍림계는 증식된 재산으로 소방기를 매입하고 공회당을 세웠으며 공동우물의 수리비를 지급했다. 1937년 11월에 경로잔치를 베풀고 가입한지 5년 이상인 계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해방까지 지속했다.¹⁴⁴⁾ 방풍림계는 마을 공유재산을 마련하고 주민 복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통합을 주도하고 마을의 공동체적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1926년 상풍덕 마을이, 1946년 구실곡이 가입하면서 방풍림계는 풍덕의 대동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최근 전라남도 장흥군 어서리 동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후반 반촌 동계의 기능과 성격은 18세기 이전의 그것과 다르다. 우선 동계의 범위가 마을 범위로 소규모화되었다. 두 번째, 민에 대한 통제기능이 소멸되고 성씨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다수 동민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인다. 세 번째, 각종 압력과 과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결속이 강화되었다.¹⁴⁵⁾ 1906년에 만들어진 방풍림계 규약에 신분지배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142) 김필동, 『한국사회조직사연구』, 일조각, 1992, 177~187쪽.

143) 1918~36년 동안 조선인간의 대출이자율은 최저 30%(1936)에서 최고 40.8%(1922)사이에서 파동을 보인다 (裴永穆, 「식민지 조선의 통화 금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15쪽.)

144)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132쪽.

145) 이용기, 「19세기 후반 반촌 동계의 기능과 성격 변화-전남 장흥군 어서리 동계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1, 2008 참조. 조선시대 풍덕마을이 속한 제내리는 풍덕·성동·대촌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방풍림계의 범위는 풍덕에 한하여 성동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동계를 조직한다고 했다(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63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풍림계는 마을 공유재산 마련과 주민복지 증진에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방풍림계는 씨족 조직이나 신분지배 조직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로 볼 수 있다.

3. 현대 마을단위의 공동체조직

(1) 계몽회의 활동과 청년지도자의 등장

해방 후 흐트러진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가난한 농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도처에 발견되었다. <표3>에서 확인되듯이 해방 당시 남한의 총인구 중 그 대부분은 문맹이었다.¹⁴⁶⁾ 충청북도의 경우 13세 이상의 총인구(592,890)중 83%(493,268)는 문맹이었다. “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지하니까 좋은 사교가 계획될 수도 없고, 그런 방안이 나올 수도 없”¹⁴⁷⁾으므로 ‘무지’는 농촌 피폐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표3> 해방 당시의 문맹자 통계

시/도별	총인구 (13세 이상 총인구)	문맹자 수	비율
경기(서울포함)	1,807,259	1,251,002	68%
충북	592,890	493,268	83%
충남	1,017,297	803,004	78%
전북	1,008,511	824,065	81%
전남(제주도 포함)	1,660,093	1,278,809	77%
경북	1,534,283	1,236,835	80%
경남	1,467,178	1,158,112	78%
강원	1,165,627	935,807	80%
합계	10,253,138	7,980,902	77.8%

*출전: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자유를 향한 여정 110년』, 학이시습, 2009, 186쪽에서 재인용.

문맹률이 높다는 것 외에 음주와 도박 등 폐풍도 농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름을 일삼아 자포자기했고, 좀 웬만한 사람들은 “분주꾼이라고 하는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들, 또 사기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집안을 망쳤”다고 한다.¹⁴⁸⁾ 1945년 10월 풍덕 청년 16명이 계몽회를 조직했다. 이부영(24세)은 회장을 맡았고 이세영(18세)은 부회장을 맡았다. 나머지 회원들은 모두 14~18세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문맹자가 없는 마을을 만들자”는 구호아래, “글을 모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가 호호 방문하여 글을 깨우치”겠다고 하면서 야학운영과 성인교육에 힘썼다. 과목은 주로 한글·역사·한문·노래·체육 등이었는데 일반 사회상식과 제례법 등도 포함되었다. 도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풍덕 계몽회원들은 “노름을 하는 집이 있으면 나팔수는 밤중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앞동산에 올라가서 나팔만 불면은, 전 회원이 집합해서 노름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집의 방 문짝을 떼어오고 노름을 못하게끔” 했다.¹⁴⁹⁾ 1950년 풍덕마을은 문맹자와 도박이 없는 마을이 되었고, 1957년 10월 9일의 한글날 기념식에서 이세영은 성인교육 유공자로 문교부의 표창을 받았다.¹⁵⁰⁾

마을 주민들을 깨우치고 퇴폐풍조를 없앤 다음에 계몽회는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해방 당시 전체 인구의 77%가 농민이었으며, 그 중 자작농은 13.6%밖에 되지 않고 소작농은 48.6%, 자소작농 16.5%, 소자작농 8.3%(농업노동자 27%)였다.¹⁵¹⁾ 농민의 80% 이상이 소작농이었으므로 지주와 소작문제가 심각했다. 1945년 10월 5일에 미 군정청이 「최소 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하여 소작료 3·1제의 실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풍덕 계몽회원들은 소작인 회의를 열고 3·1제 소작료를 지주와 타협할 때까지 소작료 납부는 일체 보류하라고 하면서 지주들을 설득해 나갔다. 1946년에 풍덕마을에서 3·1제가 관철되었다. 정부의 독려 없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3·1제를 관철했던 것은 주민들의 자량거리로 남아 있다.¹⁵²⁾

해방 이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정이 미곡을 농가로부터 강제로 수집하고 도시에 배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각 농가의 벼 공출 배당량은 이장과 면서기에 의해 정했는데 공정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1947년 가을에

146) 「문맹퇴치에 거보, 해방 5년에 480만이 해득」, 『조선일보』 1949년 7월 11일자.

147) 김영미, 『구술자료선집2』, 국사편찬위원회, 2005, 51쪽.

148) 김영미, 『구술자료선집 2』, 국사편찬위원회, 2005, 51쪽.

149)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73쪽.

150) 「9일은 한글날 반포 511주년」, 『조선일보』 1957년 10월 9일자.

1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하)』, 2003, 1121쪽.

152)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75쪽.

계몽회원들은 벼 수확고를 비밀리에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개인별 공출 배당량과 대조해 보니 불공정함이 확실했다. 마을회의에서 발표한 후 마을주민들은 이장한테 배당량을 다시 정해달라고 했고, 계몽회원들에게 면에서 풍덕 마을에 배정한 수량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계몽회원들은 주덕면에 가서 알아보고, 면에서의 배당량보다 이장이 농가에 배정한 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계몽회원들이 이장에게 항의했고 이장은 계몽회에서 실시한 수확고 조사에 의해 재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¹⁵³⁾ 소작료 3·1제를 관철하고 공출배당량을 공정하게 배정함으로써 주민들은 자기의 힘을 새롭게 인식했고 마을의 공동체적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계몽회의 영향력 또한 확장되었다.

1949년에는 계몽회장 이세영(22세)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¹⁵⁴⁾ 1930~60년대 풍덕 이장들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풍덕 이장들의 명단과 인적 사항 (1930~60년대)

이름	재임 시기	생년(초임나이)	기타
이팔영	1937~1945(9년)	1904년생(33세)	1958~1968(54세) 방풍림계장
이금호	1946~1947(2년)	1888년생(58세)	방풍림계 창설 계원
이필영	1948(1년)	1907년생(41세)	
이세영	1949~1954(6년) 1957~1961(5년)	1927년생(22세, 30세)	1980~2001(53세) 방풍림계장
이동일	1955~1956(2년)	1921년생(34세)	
이복영	1962~1971(10년)	1928년생(34세)	

1942~48년 풍덕 이장을 맡은 세 사람은 대체로 30~50대 후반의 장년들이었다. 그러나 1949~71년에 이장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으며, 각각의 재임시기가 10년 이상이었던 이세영과 이복영은 모두 계몽회원이었다. 따라서 이세영의 이상 취임은 이장권의 세대교체를 의미했다. 풍덕마을은 양반 씨족 마을이었으나 주민통합을 주도하는 방풍림계는 주민 복리를 뒷받침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세영이 이장 직을 사임한 후 방풍림계장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장이 대표하는 정부 행정조직은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인 방풍림계와의 관계는 대립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이장은 젊고 개혁정신과 실천력이 강한 인물이라면 방풍림계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마을 ‘어른’이었다. 이는 계몽회가 마을 행정의 중심조직이 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해방 후 농촌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그룹이 등장했고, 일련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전의 마을 지도자와 달리 이들은 젊고 발전 지향적이었다. 주민들이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주체로 성장한 것은 마을 활력 있는 발전을 예고한다.

(2)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

1950년대 풍덕마을에는 청년층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1947년에 화재로 소방기가 소실되자 1950년에 제내리 소방기 구입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0년에 소방기가 다시 구입되자마자 제내리에 거주하는 20~30세의 청년들은 ‘제내 의용 소방대’를 조직했다. “부락민의 인명·재산·가옥 등에 재난이 유탄시는 방지하고 동리의 안녕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했다.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후원회도 조직되었다.¹⁵⁵⁾ 1952년에는 풍덕마을의 부녀자들이 경제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부녀회를 조직했다. 부녀회원들은 절미운동과 저축을 통해 마을 기금 구성에 기여했다. 풍덕 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했다. 이만큼 계몽회원뿐만 아니라 마을 청년들은 모두 지역주체로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1957년 11월 초에 주덕면에서 목욕탕 1개소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어 이장 이세영은 여러 길을 통해 풍덕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정부 보조는 시멘트 5포와 현금 3만원이었으며, 방풍림계에서 쌀 세 가마를 보조하고 호당 1백환씩을 거출했다. 이 외에 마을 주민 이근호가 목욕탕 터를 내놓았으며, 이상필·이동호·이후영 등 주민들이 목재를 희사했다. 마을주민들은 편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공동 목욕탕이 있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이나 인근 마을의 인정을 받았다.

1957년 2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57년 5월 풍덕마을은 주덕면에서 농업협동조합 조직

153)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75~77쪽.
 154) 계몽회 초대 회장 이부영(1945~1946)은 2년간 맡아 보다가 이세영(1947~1958)이 해체 시까지 일을 맡았다.
 155)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67~68쪽.

을 권유받았다. ‘1구역 1조합’ 원칙에 따라 풍덕마을은 같은 제내리에 속하는 성동과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했다. 1957년 6월 제내리 농업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조합원은 총 111명이었는데 성동 48명, 풍덕 63명이었다. 조합장은 이세영이고 상무이사는 성동 이장 이동수였다.¹⁵⁶⁾

리동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은 다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① 생산사업(농가계획 및 리동종합계획의 수립과 실천지도)
- ② 구매사업(생산물자와 생활필수품의 공동구매)
- ③ 판매사업(생산물의 수집·운반·검사와 공동판매)
- ④ 이용사업(가공시설·공동작업장시설·보관시설·문화시설·의료시설·농업용기구 등의 공동이용)
- ⑤ 공제사업(경조와 재해에 대한 공제업무)
- ⑥ 신용사업(예금의 수집과 농업자금의 대부 및 매개대부)
- ⑦ 정부보조 사업
- ⑧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1958년 1월에 제내리 농협의 첫 업무인 구매사업이 풍덕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음력 설이 다가와서 제수를 개인에게 신청 받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었다. 1할의 이익금만 가산하고 공급해서 풍덕마을 주민 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와서 물품을 구매했다. 1958년 8월 풍덕농협은 100만환을 대부받고 50만환을 외상으로 정미소를 매입했다. 신촌에 설치되고 있는데 마을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자 운영이 되었다.¹⁵⁷⁾ 정미소 매입금 전액은 차입금이기 때문에 마을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풍덕마을은 지역사회개발계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으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58년에 반포된 「지역사회개발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지역사회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발사업을 말한다.¹⁵⁸⁾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하지만 마을 차원에서의 민주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강조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지원했던 주한 미국경제협조처 지역사회개발사업국 자문관 하지던(Linwood L. Hodgdon)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역사회 개발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은 마을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했다.¹⁵⁹⁾ 1958년에 전국 5개 군의 12개 시범부락이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착수했다.¹⁶⁰⁾ 시범부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다.¹⁶¹⁾

① 가급적 교통이 편리한 지역

156)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146쪽.
 157) 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세영이 수기에서 신촌 정미소 매입에서부터 성동과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했다(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176쪽).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상으로 한 개의 리·동을 수개의 구로 분리하여 구장(이장)을 두었는데, 이런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가 갈등을 조장했던 것 같다. 이동조합 조직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구역조정이라고 했다(강희구, 『한국농협창립실록』,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995, 94쪽).
 158) 국가별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정의가 다르다. 1956년 UN은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 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국가 체계 속에 통합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미국의 ICA는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개발 수요와 개인들의 개발수요 및 당면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계획을 수행하고,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정부나 외부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회운동이다.”라고 정의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2072쪽).
 159) 허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미국의 한국 농촌사회 개편 구상」, 『한국사학보』17, 2004, 293쪽.
 160) 구윤석은 1958년도에 예산 5천 만환, ‘시범부락’10개, 1959년에는 예산이 4억 9천 만환, 시범부락 121개로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했다(구윤석, 「내가보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지역사회개발』1호, 14쪽). 박정삼은 1958년 12개, 1960년 120개, 1961년 276개, 1962년 884개로 증가했다고 적었다(박정삼,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론』, 일지사, 1963, 162쪽). 시범부락의 숫자는 논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그 숫자가 매년 급증했던 것은 확실하다.
 1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 2074쪽.

- ② 대부분의 주민이 동질적인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 ③ 부락의 경제·사회·문화적 개발 여건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

1959년도에 시범부락은 20개 군의 123개 부락으로 확대되어 풍덕마을은 지역사회개발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었다. 풍덕마을이 속한 주덕읍은 충주-장호원-서울, 충주-음성-청주로 가는 교통의 길목에 위치한다. 씨족마을인데다가 전통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방풍림계가 있고 주민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 후 청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범부락’으로 선정된 모든 마을은 중앙에서 파견된 현지 지도원의 도움 아래 개발계를 구성하고 모든 세대주가가 개발계에 참석해야 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시 10명에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 ‘평의원회’(또는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했다.¹⁶²⁾ 1959년 7월 지역사회개발 지도원 홍민희와 이옥기가 풍덕마을로 부임하고, 동년 10월에 풍덕 지역사회 개발계가 조직되었다. 79호의 농가가 모두 계원이 되고 덕신초등학교 교사 이우영이 초대 계장, 이세영은 부계장을 맡았다.¹⁶³⁾ 당시의 방풍림계 계장 이필영, 부계장 이만영, 이장 이동일 등 마을 유지들이 평의원을 맡았다. 풍덕 개발계의 목적은 “계원 전체가 자조자립을 신조로 하고, 합심 합력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락의 경제·사회·문화생활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와 민족의 부강과 민주적 발전에 기여”¹⁶⁴⁾하는 것이었다. 방풍림계의 목적과 비교해 보면, 주민 간의 친목 외에 주민들의 자조자립정신과 마을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도 강조되었다.

지역사회개발운동에서의 ‘정부보조사업’은 주로 산업경제분야(관개수리, 농경지개간, 도정공장·창고, 양어장, 축사 개량 등), 토목건설(도로공사 등), 사회교화분야(문화관, 계몽교육 등), 보건위생분야(공동우물, 공동목욕탕), 생활개선분야(의식주 생활개선, 공동미화, 미신타파, 국기양양 장려 등), 조직분야(4H구락부, 부녀·청년 조직 조장) 등에 있었다.¹⁶⁵⁾ 1959년에 풍덕마을은 제1차년도 보조사업으로 신촌에 있는 정미소를 풍덕으로 이전했다. 1959년 12월에 신촌 정미소 건물을 매각한 후 1960년 4월에 건평 35평의 양곡 도정공장을 신축했다. 보조금 150만원에 자부담 123만 8천환이 들었다. 도정공장은 2%의 저렴한 도정료를 받으므로 풍덕 뿐 아니라 이근 마을의 주민들도 이용했다.¹⁶⁶⁾ 연간 40여만 환의 이익금을 보아 이 돈으로 신촌 정미서 구입 시의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¹⁶⁷⁾

1961년 9월에 2차년도 보조 사업으로 건평 20평의 농산물 가공 공장이 세워졌다. 보조금 130만원에 자부담 75만 8천환이 들었는데, 연간 순이익 10만 환에 이르렀다. 1962년에는 3차년도 보조 사업으로 300평의 양어장을 1150평으로 확대했고, 자부담 56만 환으로 구매점을 건립했다. 공동이용시설로부터 얻어지는 공동기금이 연간 82만 4천원에 달했다. 보조 48만원과 자부담 88만원으로 16개의 ‘공동우물’을 설치했으며, 보조금 76만 6천 환과 자담금 185만 6천 환으로 변소개량을 시행했다.¹⁶⁸⁾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기술뿐만 아니라 노력도 필요로 했다. 계원들의 노력동원에 대하여 지역사회개발계가 사역증권(使役證券)을 발행했다. 이 증권은 “본계 사업 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역했으므로 이 증권을 교부”한다고 하여 발급한다. 증권에 대한 자본 청구는 “본계 사업이 해산했을 시에 한함”이라고 한다.¹⁶⁹⁾ 풍덕 지역사회개발계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줌으로써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자극하고 노력동원을 보장했다.

이러한 마을개발사업에 전통조직 방풍림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1958년 11월 마을총회에서는 방풍림계 규약이 개정되었다. 방풍림계의 목적은 “방풍림을 미화 조립해야 수화풍계를 방지하고 계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사회적 미풍양속을 배양하며, 문화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1906년에 제정된 방풍림계의 규약과 비교해 보면 수화풍계의 방지 및 주민간의 친목은 여전히 계의 목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부업장려 등 주민 경제생활의 향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사회적 미풍양속의 배양과 문화향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6장에는 상벌조항이 추가되었다.¹⁷⁰⁾

162) 허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미국의 한국 농촌사회 개편 구상」, 『한국사학보』17, 2004, 293쪽.

163) 「지역사회개발에 눈부신 활약, 살찌는 풍덕부락」, 『대한일보』1962년 10월 2일자.

164)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56쪽.

165) 박정삼,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론』, 일지사, 1963, 168~172쪽.

166) 「지역사회개발에 눈부신 활약, 살찌는 풍덕부락」, 『대한일보』1962년 10월 2일자.

167) 「풍덕동에서는 인안대군후손들 배여가구의 씨족부락 이룩, 한 푼의 빛도 없이 건전한 농협마련」, 『경향신문』1964년 11월 20일자.

168) 「지역사회개발에 눈부신 활약, 살찌는 풍덕부락」, 『대한일보』1962년 10월 2일자.

169)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76쪽.

170)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48쪽.

제6장 상벌

제27조: 본 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할 수 있다.

1. 본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유한 자.
2. 효행열부의 독실한 자.
3. 사회적으로 미풍양속 배양함이 현저한 자.

제28조: 전 각호의 해당으로 계원의 준비속으로서, 타처에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계에서는 자동 적으로 표창하여야 한다.

제29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한 자는 벌금을 징수한다.

1. 방풍림 수목의 수령 10년 이하를 절지 급 도벌에는 1수당 백미 1가마, 수령이 10년 이상을 절지 급 도벌에는 시가에 10배를 배상한다.

제30조: 비 계원으로서 제29조를 불 이행시는 계장이 고발한다.

1958년에 풍덕마을이 정미소 사업의 실패로 인해 빚을 지자 방풍림의 나무를 팔아 빚을 갚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나무 도벌 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주민들이 방풍림계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적 미풍양속을 이행하는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방풍림계의 마을 질서 유지, 공동체적 결속력 강화 등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풍림계는 후원조직으로서 마을 공유물의 마련이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4-H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개발계에게도 경비를 제공했다.

<표5> 방풍림계의 주요활동 (1950~1966)

연도	주요활동
1950. 4	제내리에서 소방기를 구입. 풍덕에서는 반액을 넘는 25원(총 40원)을 지급.
1950. 11	공회당 신축비로 쌀 4가마 지급.
1952. 4	경로잔치를 베풀
1952. 11	동네 그릇 장만.
1953. 11	차일과 저울 마련.
1955. 11	창설 50주년 기념. 이석호 방풍림 창설계장 불망비 세움.
1957. 3	경로잔치를 베풀.
1957. 11	확성기 설치를 위한 은행 차입금 지불.
1958. 11	분무기를 구입하여 각 반에 배부함.
1959. 11	지역사회개발계의 경비로 쌀 6가마 5말, 마을 경비와 4H경비로 쌀 2가마, 소방기 창고설립비로 쌀 1가마 8말을 지급.
1960. 11	상여 수리비로 쌀 2가마, 마을 경비로 쌀 3가마, 농산물 가공공장 건축비로 쌀 16가마 8말을 지급. 이자율 연 3할로 정함.
1962. 11	동기값 반계금으로 6,690원, 도정공장 건축부채 상환금 13,373원 지급. 양수기 구입(2,415원).
1964. 4	방풍림을 상록수로 보식하여 2중 숲을 조성.
1965. 12	개발계 부채 상환금으로 쌀 11가마를 지급. 마을 경비(63, 64, 65년도 분) 22,543원 지급. 공회당 재축자금 14, 368원과 전기 가설금 2,508원을 지급.
1966. 11	자산 빈약으로 지출 일체 금지하기로 하고, 마을 경비는 개발계에서 부담하기로 함. 경로잔치를 베풀.

※ 출처 :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방죽안 풍덕의 씨족마을』, 문화관광부, 1998, 210~212쪽.

풍덕 청년들은 방풍림계의 뒷받침 아래 발전 지향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와 달리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의 청년들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의 보수성·배타성을 비판하고 5개 농업협동조합의 합병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흔히 말하는 구림마을은 동구림과 서구림을 말하며, 학암·동계·고산·서호정·남송정·신흥동·백암동 7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마을에는 남주 최씨·선산 임씨·함양 박씨·연주 현씨·창녕 조씨·해주 최씨 6개 대성씨가 공존하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양반마을이었다. 16세기에 창립되는 대동계는 주민통합을 주도해 오고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¹⁷¹⁾

171) 구림대동계가 언제 창립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자료가 없다. 박사량(朴思諒)¹⁾의 「서호동계전말

기존 연구에 의하면 구립 대동계는 향약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구립마을은 유교적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¹⁷²⁾ 해방 후 모정·양정리·동호리 등 대동계의 범주 밖에 존재하지 않은 과거 농민마을의 주민들은 여전히 구립마을 주민들로부터 친대를 받았다. 한 예로 대동계는 산림보호를 위해 도벌을 금지시켜 인근의 ‘농민마을’의 주민들은 멀리 나가서 뿔감을 구해야 했다. 이들은 돌아올 때 구립을 통과해야 했는데 마을주민들로부터 곤욕을 받았다.¹⁷³⁾ 뿐만 아니라 대동계 계원이 된 노·장년들은 양반이나 대지주 행세를 하면서 개척정신과 발전의욕이 빈약했다. 이웃 ‘상민마을’은 잘 살게 되었으나, 구립마을은 오히려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타향 출신으로 구립에 들어와 산지 50년이 넘는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립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선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 하지만, 실제로는 궁핍하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상과 경제의 불일치라거나 할까. 한편으로 이들은 지식이나 부의 측면에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는 견디기 어려워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지거나 재지기 등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여 잘 살게 되었다. 몰아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넓은 농지를 배경으로 자녀교육에 열심이었으며, 이제는 구립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⁷⁴⁾

1950년대 구립의 청년들은 “봉건적 유물을 부등켜안고 버리지 않은 집단들이 있으니 구립 또한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오늘의 구립이 이러한 배타와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¹⁷⁵⁾ 1958년에 동서구립 여섯 개 마을(백암동 제외)의 청년 14명이 일심계를 결성했다.¹⁷⁶⁾ 조영희가 계장을 맡았고 유사는 계원들이 차례대로 맡기로 했다.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마을에서 20~40세의 청년 총 200여 명을 모아 구립청년회를 만들었다. 청년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모두 일심계원이었다. 즉 다섯 마을의 청년 14명이 일심계를 조직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각 마을의 청년들의 단합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도둑 방지를 위한 방범활동,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의 감시·선도, 구립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삼아 활동하기 시작했다.¹⁷⁷⁾

1950년대 구립마을에는 7개의 협동조합이 있었으나 규모가 영세해서 이동조합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1961년 2월에 최장호를 비롯한 청년들은 기성의 이동조합을 정비·통합하는 것을 제의했다. 청년조합원 50여명이 1인당 10,000원씩을 출자하여 합병 추진에 동조했다.¹⁷⁸⁾ 6월에 5개 이동조합의 합병이 완료되어 최장호가 초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상무이사 최철중, 이사 최병기·최재영·최길호·최금규·최철호, 감사 조재원은 모두 일심계 계원이었다.¹⁷⁹⁾

1961년 11월에 조합이 개인경영의 보관창고를 인수하여 60평의 농산물보관창고를 신축했다. 1962년부터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부터는 예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에 주민들은 추수기에 의무적으로 10%씩을 조합에 저축하고, 필요한 농사자금을 월 3%의 이자율을 내면 쓸 수 있었다. 당시 사채는 보통 월 5% 내지 6%의 높은 이자율을 이루고 있었다. 신용사업의 발전으로 구립마을에 “고리대금업자들이 발을 붙였다가 울고 돌아간”다고 했다.¹⁸⁰⁾

1966년에 농가마다 의무적으로 농우 2마리, 돼지 100마리, 닭 50수 기르기 운동이 추진되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동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청년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을 왕래했다.¹⁸¹⁾ 영농 개선을 위해 마을 이동조합 안에 영농개선태담소를 마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농가마다 영농일기 쓰기운동을 벌였다. 1966년 주민들 상거래상의 불편과 교통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을 건설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양반의 후예나 대지주의 후예로 자처한 마을 노년층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라도 시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판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요

서기(西湖洞稷顛末序記)에 의하면 1565~1580년간에 창립되었다(정근식 외, 『구립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164쪽 참조).

172) 최재율, 「한국농촌의 향약계연구: 구립대동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집』19,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1973; 정근식 외, 『구립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173) 정근식 외, 『구립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참조.

174) 정근식 외, 『구립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경인문화사, 2003, 64쪽에서 재인용.

175) 군서학생동지회, 『시의 마을 구립』, 1953, 53쪽.

176) 1967년 농협중앙회 농림지도부가 편찬한 『이동농업협동조합사업성공사례집』에서 “5.16과 더불어 여기 구립리에도 새로운 생활 붐이 폭풍처럼 내습해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미 1958년부터 시작했다.

177) 구립지편찬위원회, 『호남명촌 구립』, 구립지편찬위원회, 2006, 389쪽.

178) 농협중앙회 농지도부, 『이동농업협동조합사업성공사례집』, 농협중앙회, 1967, 162쪽.

179) 「구립협동조합의 상부상조」, 『조선일보』1963년 9월 3일자.

180) 「농촌을 벗긴다 (3) 재산보다 빠리느는 부채」, 『경향신문』1970년 1월 7일자.

181) 「농촌을 벗긴다 (4) 소비성향과 여가 이용」, 『경향신문』, 1970년 1월 12일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했다.¹⁸²⁾ 마을기쁨을 바로잡기 위해 청년들이 도박근절과 음주금지운동을 전개하고 50집이 넘던 술집가운데 30집이 문을 닫게 했다. 부녀자의 옷은 사 입지 않고 직접 만들어 입도록 했다.¹⁸³⁾ 소득을 올리고 알뜰하게 생활함으로써 구림마을은 ‘부자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실정에 따라 발전의 코스가 다르지만 1950, 60년대 농촌사회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단합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만약 새마을운동이 없었다면 한국의 농민은 침체와 퇴영 속에서 안주하면서 체념한 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¹⁸⁴⁾라는 판단은, 1950,60년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4. 정부차원의 지원과 추진력

(1) 새마을운동과 기존의 마을공동체 세력과의 관계

1962년에 박정희는 “빠져리게 느꼈던 간난을 농촌에서 추방하려고 혁명직후 중농정책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¹⁸⁵⁾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67년)에 제2차 사업은 계획(14.8%)을 초과해서 연평균 15.0%의 성장을 이루었고 제3차 산업은 계획(4.3%)을 초과해서 연평균 8.1%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제1차 산업의 성장률은 계획(5.6%)에 미달하는 5.3%에 불과했다.¹⁸⁶⁾ 1967년 1월 1일에 전국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박정희는 “근대화작업의 열쇠가 비록 공업입국에 있다 할지라도 농업의 진흥 없이는 공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근대화야말로 조국근대화의 지름길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농공병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¹⁸⁷⁾ 그러나 2차 5개년계획 기간(1967~71년)의 투자비율을 보면 제3차 산업부문에 53%, 제2차 산업부문에 30.7%를 배분했고, 제1차 산업부문에 16.3%만 투자했다.¹⁸⁸⁾

농업에 대한 투자의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 우선 저미가정책 때문에 정부는 아무리 미곡증산을 하라고 해도 농민들에게 호소력이 없었다. 1969년에 김제군 대저면 토지개량 조합장 류봉룡은 “3백 평당 441kg의 증산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논이 피도 뽑지 않는다. 시위효과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서 길가논의 피 뽑기 운동을 벌였지만 농민들의 의욕을 일깨울 수가 없”다고 말했으며, 같은 면의 박모씨는 “쌀값만 생산비 이상으로 정부가 보장해 준다면 장려하지 않아도 쌀 증산이 된”다고 했다.¹⁸⁹⁾ 통계에 의하면 1966~1971년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94.7%에서 69.4%까지 떨어졌다.¹⁹⁰⁾ 농업의 침체는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농업부진으로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이농이 속출되었다. 1964년까지만 해도 농가구당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을 29.3%를 초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을 따르지 못했다.

<표6> 전국 도시근로자 대 농가의 소득비교 (단위: 원)

연도	내용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A)	농가구당(B)	상대비(%)B/A
1963		80,160	93,179	116.2
1964		97,200	125,692	129.3
1965		112,560	112,201	99.7
1966		161,520	130,176	80.6
1967		248,640	149,470	60.1
1968		289,080	178,959	62.6

출전: 정출도, 「농민은 어떻게 살고 있다」, 『신동아』 1969년 11월호, 228쪽에서 재인용.

182) 농협중앙회 농지도부, 『이동농업협동조합사업성공사례집』, 농협중앙회, 1967, 158쪽.

183) 「농촌을 벗긴다 (4) 소비성향과 여가 이용」, 『경향신문』, 1970년 1월 12일자.

184)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0, 582쪽.

185) 「새마을운동과 농촌재건의 의지」, 『세대』 1972년 4월호, 72쪽. 중농정책이란 농업이 국가 산업 상 차지하는 비중과 전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거기에 비등할 만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비등할 만큼의 자원을 배분하며, 사회정책면에서도 비등한 배려를 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정책이다(「역대농림장관과 담화: 농촌은 잘 살 수 없다」, 『신동아』 1969년 11월호, 76쪽).

1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40년사』, 1989, 27~28쪽.

1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40년사』, 1989, 36쪽. 농공병진은 농업과 공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뜻인데, 정부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부문을 일으킴으로써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과 공업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188) 김경래, 「‘중도정책’으로 농촌은 시들고」, 『사상계』 1967년 1월호, 145쪽.

189) 정출도, 「농민은 어떻게 살고 있다」, 『신동아』 1969년 11월호, 256쪽.

1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40년사』, 1989, 35쪽.

농민들은 어디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나가려고 했다. 1960년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였는데 1970년에는 59%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전체 인구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의 28%에서 1970년의 41%로 급증했다. 1960년 서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했는데 1970년에 이르러 17.6%로 증가했다.¹⁹¹⁾ 이와 같은 이농추세는 도시의 빈민문제, 도시의 노동문제를 가중시켰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사건은 농촌의 피폐가 사회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농촌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 아래 집권자에게는 농민층의 수적 우세를 무시할 수 없었다. 1960년대 농촌농민을 희생하는 경제발전전략으로 박정희 정권의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 1971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식 비율이 14%를 하락했다. 도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제주도도 제외한 모든 농촌에서의 득표율도 하락했다. 이것은 박정희로 하여금 어떻게든 농민들을 무마하고 여당의 주요 정치 기반인 농촌에서의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했다. 이에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것이다.

1970년 10월 2일에 내무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의 마을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배부했고, 마을 산 푸르게 만들기, 마을로 들어가는 길 넓히기,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와 바로잡기, 퇴비장 만들기, 소류지 모래 파내기, 마을우물 고치기, 마을청소와 메워진 하수구 파내기, 공동우물 만들기, 공동빨래터 만들기, 쥐 없는 마을 만들기 등 10개 종목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권장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은 하나의 시험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 자조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¹⁹²⁾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상적인 새마을운동은 주민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사회개발 및 지역개발의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다.”¹⁹³⁾ 그러나 “주민들의 자조·자립의 정신과 협동·발전의 의욕이 극히 미약”하고, “마을 자체에 헌신적이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던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선두에 나서지 않으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을에서 운동의 물적 기초인 재원이 극히 미약”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수준도 극히 낮”으므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지원·기술지도가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¹⁹⁴⁾ 1971년 8월 내무부 직제개정이 통화되어 개발과가 폐지되는 반면 지역개발담당관이 신설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최초로 새마을 전담부서가 조직되었다.¹⁹⁵⁾

1972년에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한다”고 지시했다. 1972년 3월 7일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새마을운동 추진협의체가 조직되었다. 즉 중앙에는 중앙협의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협의회, 시·군에는 시·군협의회, 읍·면에서는 읍·면추진위원회, 마을단위에는 이동개발위원회를 두는 것이었다. 중앙협의회는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 ① 새마을운동에 관한 시책의 협의조정
- ② 새마을운동에 따른 투·융자기준의 설정 및 조정
- ③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홍보의 협의조정
- ④ 기타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협의회에는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경제기획원차관·내무부차관·농림부차관·상공부차관 등 12인이 위원을 맡았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도 참가했으므로 농협·수협은 정부정책의 보조기관이 된 셈이었다. 시도협의회는 시도내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지원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시장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을 맡았다. 시·군협의회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위장을 맡았고, 읍·면추진위원회에서는 읍·면장을 위장으로 했다. 마을에서는 각종 기능별 조직의 대표자 15명이 이동개발위원회를 결성했다. 주로 마을 내의 각 기능별 조직의 활동을 조정하고, 새마을사업을 토의·결의하며, 행정시책에 대한 계몽활동을 했다.¹⁹⁶⁾ 전체 마을 주민이 회원이 되어 새마을지도자나 이상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마을 개발사업 계획의 작성·실시·결과보고를 담당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먼저 위원회를 열어 계획안을 작성하고 총회에서 그 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을 시·군에 제출하고 다시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확정통지 및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 받았다. 위원장은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한 후 주민총회에서 확정하고 다시 읍·면을 거쳐서 시·군에 보고했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이동개발위

191)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7, 118쪽.

192) 「이동마다 새마을운동」, 『경향신문』1970년 10월 2일자.

193)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153쪽.

194)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171쪽.

195) 「내무부직제개정안 개발과 국으로 승격」, 『매일경제』1971년 8월 6일자.

196)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0, 164~165쪽.

원장은 주민부담을 배분·정수하고 외부지원을 신청하며, 시군의 기술요원의 지도를 받아 공작물설계를 했다. 사업이 시작된 후 이동개발위원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별 및 월별로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추진기구는 정부의 시책이 중앙→시·도→시·군→읍·면→마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천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이었다.

1972년 4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정희는 모든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¹⁹⁷⁾ 1973년 2월에 시·도기구개편이 이루어져 각 시·도에 '새마을지도과', 시·군·구에는 '새마을과'가 신설되었다.¹⁹⁸⁾ 이로써 새마을운동의 운영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조직체가 생겨났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역할은 주로 행정지원·기술지원·재정지원·자원지도자의 양성이었고, 마을개발 사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그 해결을 뒷받침해야 한다. 새마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했다.

<표7> 공무원의 담당 지역과 순회 회수

담당 공무원	담당 구역	지도 또는 순회 회수
내무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해당 시·도와 마을	월 한 번 이상
시·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해당 시·군과 마을	월 두 번 이상
시·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해당 읍·면·동과 마을	월 한 번 이상
읍·면·동 공무원	마을	주 두 번 이상

출전 :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183~185쪽에서 재작성.

내무부와 시·도, 시·군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으로 담당 구역에 현지출장하고 새마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확인했다. 읍·면 공무원들은 1마을 1공무원에 따라 배치되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수시로 마을에 출장했다. 1971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 유공 공무원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포장을 받게 된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의 한 공무원은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의 생활 근거지는 아산면인데 근무처인 광의면 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10km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날마다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담당부락에 들려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협의도 하고 주민의 생활하는 모습, 주민들의 소망·동태 등을 두루 살피고 날이 어두우면 부락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고 주민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며 지도했다.¹⁹⁹⁾

새마을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문책되기도 했다. 1972년 3월만 해도 각 시·도에서는 새마을사업 실적이 부진한 면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는 '해임선풍'이 일어났다. 15~23일까지 ① 새마을사업 실적이 현저히 뒤지거나 ② 도에서 발하는 새마을회의에 이유 없이 결석했거나 ③ 새마을지도자 선정을 마치지 않는 이유로 각 도에서 군·과장 1명, 면장 8명, 동장 3명, 면적원 8명 모두 20명이 해임되었다.²⁰⁰⁾ 1973년 3월에 농협중앙회는 새마을정신이 부족한 일부 조합장을 새마을지도자형의 새 인물로 바꾼다는 방침아래, 전국 1,815명의 농협조합장 중 478명(26.3%)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²⁰¹⁾ 농협마저 중앙의 시책을 전달하는 조직으로 바꾸었다. 1972~74년도 경기도 이천시 아미리마을 이장을 맡았던 강명원은 공무원들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마을로 출근해서 독려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증언해 주었다.

- 아주 무지무지 고생했지. 직원(공무원)들이 아주 여기 와서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 이장은 밥해 주고. 새벽이 되면 개들이 나가서 종치고 독려하고 그러는 거야.
- 그런 거는 이 동네만 그랬나요?
- 다 그랬지. 다른 동네도. 출근부를 찍고서 각 부락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갈 때 읍·면장한테 사흘간 거기서 독려하겠습니까 하면 아예 아주 출근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 동네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겁니까?
- 하는데 양을 한정을 주는 거지. 스스로 안 하니깐 담당 직원에게 문책을 시키는 거야. 요만큼 못하면 넌 사

197) 「정부지원은 자조정신 해치지 않게, '새마을운동' 지도층 참여 촉구」, 『조선일보』 1972년 4월 12일자.
 198) 「시·군에 새마을과 신설」, 『매일경제』 1973. 1. 25일자.
 199) 「새마을 가꾸기 모범 지도자 수기:우리는 새 마을을 가꾼다」,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년, 236~237쪽.
 200) 「새마을운동 해임선풍, 어제 하루 면장 10명」, 『조선일보』 1972년 3월 24일자.
 201) 「전국 농협조합장 일괄사표, 새마을지도자로 교체」, 『조선일보』 1973년 3월 25일자.

표 써라. 사표 쓰고서 내 보내고 그랬지. 애들이 나가서 그걸 양을 채우러니까²⁰²⁾

1973년 3월에 반포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규정」에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은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1월 22일 박정희는 제1차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을 ‘유신의 실천도장’으로 강조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적인 규모로 조직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지시 아래 추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72년에 정부의 지원방식은 우수마을 우선지원으로 바꾸어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 반응과 성과가 좋았던 1만 6천 마을에 평균 시멘트 500부대와 철근 1톤씩을 지원했다.²⁰³⁾ 박정희는 “일은 하지 않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게으른 그러한 퇴폐적인 농어촌을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농어촌과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²⁰⁴⁾고 말하면서, 차별지원을 함으로써 마을 간의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장하고자 했다. 1973년에 전국 모든 마을이 새마을운동에 참여되었다.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자조마을·자립마을로 분류하여 마을 실정에 따라 새마을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²⁰⁵⁾ 기초마을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마을로서, 환경개선과 정신계발을 통해서 자조의욕을 점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²⁰⁶⁾ 정부는 각 마을마다 시멘트 500부대와 철근 1톤씩을 지원했다. 자조마을은 대체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마을로서, 가꾸기 사업 이외에 소하천 가꾸기, 생산기반사업과 공동소득사업을 통해 마을기금 50만원 조성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그 성과에 따라 응분의 지원을 했다. 자립마을은 주로 자조마을단계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공동소득사업·생산기반사업·문화복지사업 등 사업을 전개하며, 마을기금 1백만 원 이상을 조성해야 되었다. 정부는 우선지원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육성했다.²⁰⁷⁾

<표8> 승급을 위한 필수기준 사업

사업별	기초	자조	자립
안길	간선 안길	지선 안길	-
농로	마을진입로	경작 농로	-
소하천	마을안 細川	마을간 細·小川	마을밖 小·中川
농업용수	水利率 70%	水利率 70%	水利率 85%
농업기계	-	동력방제기	동력경운기·동력탈곡기
협동영농	협동작업반	협동생산사업	협동생산사업
마을기금	마을 당 30만 원	마을 당 50만 원	마을 당 100만 원
호당소득	50만 원	80만 원	140만 원

출전 :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년, 215쪽 재인용.

1971년에 새마을사업으로 풍덕회관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세영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71년대 새마을사업은 참뜻을 모르는 채 어영부영 넘겨버렸”고 72년도도 “한 해를 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년 11월에 풍덕마을은 기초마을로 선정되어 양회 700포대와 철근 1톤이 배정되었다. 해방 후 축적해온 발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풍덕마을이 새마을운동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마을이 되었다.

1972년 12월 임원회의에서 풍덕마을의 새마을사업계획은 ① 마을의 진입로 확장, ②마을 안길 확장, ③소교량 건설, ④ 측구 정비로 확정되었다.²⁰⁸⁾ 풍덕 지역사회개발계장 이우영의 제의에 따라 ‘지역사회개발계 서기’를 ‘사업부장’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개발계 서기라고 하면 개발계에 속한 업무만을 보는 것 같아서 범위가 좁은 것 같으므로 앞으로 새마을 사업 업무까지를 보자면 사업부장이라고 해야만 용어상으로나 명칭 상으로나 타당” 할 것이었다. 지역사회개발계의 지도자들은 새마을 사업에도 개입할 것을 의미한 것이다. 1973년 1월 25일 정기 마을 총회에서 이상을은 이장으로, 이상인은 사업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상인이 사양함으로 사업부장은 이세영으로 했다. 2월에 새마을지도자로 이자호(35세)가 선출되었고, 개발위원회 임원의 주요 업무가 정해졌다.

<표9> 마을개발위원회 임원과 역할

202) 마을 주민 강명원(1942년생)의 구술(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222쪽에서 재인용).

203) 「만 6천 이동 ‘새마을사업’, 올해 백 57억 투입」, 『조선일보』 1972년 1월 18일자.

204)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새마을운동』, 1978.

205) 1972년 분류한 유형별 마을 수는 다음과 같다. 기초마을 1만 8천 415마을, 자조마을 1만 3천 943마을, 자립마을 2천 3백 7마을이었다(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213쪽).

206) 「이동마다 새마을운동」, 『경향신문』 1970년 10월 2일자.

207)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1980, 214쪽.

208)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78쪽.

직위	이름	주요 업무
이장	이상을	출역 동원
사업부장	이세영	새마을 계획서 및 도면작성
새마을지도자	이자호	사업 감독

<표9>에서 확인되듯이 풍덕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주요업무는 사업 감독에 불과했다. 원칙적으로 새마을 계획서 및 도면작성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였지만 사업부장 이세영이 맡았다. 1973년에 풍덕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을 때도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이장도 아닌 이세영이 우수새마을지도자로 표창되었다. 정부에서 편찬한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집을 보면 새마을운동 초기에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들 중 상당수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들을 주도하는 핵심인물은 새마을운동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우수새마을지도자로 포상 받았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수직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동원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도 1950, 60년대의 마을개발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새마을운동의 주역으로 흡수했다. 새마을사업은 마을개발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1970년대 초에 보인 농촌발전의 성과는 지나간 수십 년간에 농촌주민들의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2) 정부의 개입이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

새마을운동에서 정부 지원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재력·노력 투입도 요구되었다. 1971년 풍덕회관 건립 사업에서 이달영(강릉 동인의원장)·이상립(충주 충일약국 사장)·이나영(제일교포) 등 객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찬조금 총 60만 원을 희사했고 부족한 부분은 방풍림계에서 보충했다. 장소는 양어장을 메워서 짓고 필요한 목재는 방풍림을 간벌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출역을 했다.²⁰⁹⁾ 그러나 마을 진입로나 안길 확장을 위한 토지회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1972년 11월에 풍덕마을은 기초마을로 선정되어 양회 700포대와 철근 1톤이 배정되었다. 12월 임원회의에서 풍덕마을의 새마을사업계획은 ① 마을의 진입로 확장, ②마을 안길 확장, ③ 소교량 가설, ④ 측구 정비로 확정되었다.²¹⁰⁾ 이세영의 수기에 따르면 타 마을 주민의 토지는 매입했고, 풍덕 주민의 토지는 “그냥 허락을 받았”다.²¹¹⁾ 1972년 12월 마을안길 확장공사에서 주민 이치영의 변소를 철거해야 되었다. 땅의 주인 이상필 지주가 승낙을 했으나 경작인 이치영과 그 가족이 심한 반대를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이세영에 의해 설득되었다.²¹²⁾ 1973년 1월에 새마을 광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덕과 이상을이 서울에 거주하는 이상필을 찾아가서 토지 회사를 청구했다. “이상필 씨가 이상덕 씨와는 동갑이며 동문수학하여 자별한 사이이고, 이상을 씨와는 종형제 간이고, 더욱이 이상을씨는 새마을 지도자이므로 토지사용 승낙받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수월하겠다가에 두 분을 보낸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확인되듯이, ‘허락’을 받기 위해 사적인 관계가 동원되었다.

마을 안길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회사를 반대한 이치영은 이세영 등 마을유지에 의해 설득되었으나, 1973년 1월 풍덕마을 회의록을 보면 임원들은 “이치영 씨 밭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면이나 지서에 부탁”하기로 한 기록이 있다. 새마을운동에서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었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공무원은 사표를 써야 된다. 면직에 대한 두려움이나 승진에 대한 욕망으로 공무원들은 마을 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독려하고 비협조자들에게 압력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한 농민은 수기에서 새마을운동 당시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며 땅주인을 설득”했고, 군청과 읍사무소 관계자들이 와서 “엄포를 놓”았으며 경찰서에서도 몇 번 다녀왔다고 했다.

군청과 읍사무소 관계자들은 날마다 성화였다. 자기들이 직접 땅 주민들을 찾아가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군청에서는 측량 기사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경찰서에서도 몇 번 다녀갔다. 지도자도 눈물을 흘리며 땅주인들을 설득하러 다녔다.²¹³⁾

충청도 한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는 토지 기부를 반대하는 주민한테 맞아 앞니가 부러졌다. 경찰청장은 이장을 때린 것은 꼭 자기를 때린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민을 경찰서에 갇혔다. 피해를 입은 새마을지도자마저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무법천지”였다고 했다.

209)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56~257쪽.
 210)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78쪽.
 211)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83쪽.
 212)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281쪽.
 213) 노금노, 『땅의 아들 1』, 돌베개, 1986, 147쪽.

새마을운동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마을과 자매결연 관계인 검찰지청장은 이장을 때린 것은 자기를 때린 것이니 때린 사람을 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지서에 간첩했습니다. 동네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그를 석방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서에 가서 석방시켜달라고 했는데 지청장은 가해자를 단단히 혼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지청장을 설득해서 결국 가해자는 11일간 구류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무법천지였습니다.²¹⁴⁾

새마을운동에서 “마을당 총 2000미터의 마을길이 넓혀졌으며, 토지소유주들은 새마을사업들의 부지를 위해 마을당 약 1500평의 땅을 회사”했다.²¹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적인 압력이 작용을 했다. 그 결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들”이 커졌다.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의 자력에 의해 더 확보해야 할 자금·자재·인력의 조달문제나 필요한 토지의 확보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를 개별 농가 간에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민들 사이에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의견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 1980년대 경기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 당시 이루어졌던 토지기부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일부 농가들은 지금도 당시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끌어들이어서 고생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²¹⁶⁾ 이만갑도 조사를 통해서 “마을 도로사업에서 강제적인 토지회사는 어느 곳에서나 분열의 원천이 되었다”고 밝혔다.²¹⁷⁾

1973년 3월 7일에 중원군 새마을과장과 새마을 계장이 내방하여 이세영·이자호를 데리고 인근마을의 조정사업을 구경하게 했다. “사업을 확장하여 멋지게 마무리”하라고 말하면서 풍덕마을을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육성해 보자고 했다. 시범부락이 되려면 군과 면에서는 지원을 주겠으나 마을에서 사업자금 1백만 원을 모아 놓아야 된다고 했다. 50m로 바로잡기로 한 마을 안길은 100m로 하고, 길의 폭도 4m에서 5m로 넓혀야 되었다. 밖의 변소의 철거, 전 가옥의 지붕 개량, 담장 개량 등 사업도 지적했다. 3월 16일의 마을총회에서 새마을 시범부락을 받아들여서 새마을 사업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나 주민들은 “좋다 나쁘다는 기색이 없이 무반응이었다”. 3월 18일 임원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업을 확장하면 영농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반대했다. 결국 3월 20일의 임원회의에서 이세영이 “중원군에서는 이미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내정하고 지금 풍덕마을을 새마을 자립마을로 육성코자 함은 과거 지역사회 개발사업 당시의 우리 마을의 단결력과 근면성을 보고 재적으로도 방풍림계가 있으므로 어느 마을보다도 새마을 사업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풍덕마을을 선정한 것 같으니 우리 한번 제대로 새마을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군하고 손잡고 새마을 사업을 힘차게 해보자”고 설득해서, 새마을 사업 확장이 결의되었다.

사업 확장 계획안은 마을회의와 임원회의 세 번을 거쳐서야 통과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자재·행정 지원이 마을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주민과 마을지도층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세영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는 기존의 마을개발 세력과 손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1972년 3월부터 풍덕 주민들은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범부락이 되기 위한 새마을 사업에 착수했다. 1973년 5월 마무리 때까지 두 달 동안 내무부와 도·군의 새마을 격려차나 시찰차가 수십 번으로 들어왔다.

<표10> 1973년 3~5월 공무원들의 풍덕마을 출입 기록

날짜	내용
3. 23	풍덕마을 새마을 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협의차 내방. 중원군 새마을과장과 새마을계장 나옴.
4. 2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실의 농업통계계장 내방.
4. 3	충청북도 새마을지도과장과 군 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 현장 지도차 내방.
4. 4	주덕면 총무계장 새마을 사업장 확인차 내방.
4. 5	주덕면장과 주덕지서장 새마을 사업 격려차 내방.
4. 8	중원군 새마을과장과 농림과장·산림과장 그리고 새마을 사업장 격려차 내방.
4. 9	중원군수, 충청북도 직원, 군 공보실, 충주문화방송실 내방. 마을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 취재.
4. 10	충청북도 부지사와 새마을지도과장 내방.
4. 12	중원군 새마을과장과 새마을계장 새마을 사업 지도차 내방.
4. 19	주덕면장·주덕지서장·총무계장 내방.

214)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47호, 1999, 62쪽에서 재인용.

215) 박진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2005, 103쪽.

2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61쪽.

217) 브란트·이만갑, 『한국사회의 지역사회개발연구-4개 새마을부락의 사례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9.

4. 23	중원군수와 새마을과장 내방.
4. 24	내무부 새마을과 경제기획원 직원이 경제동향보고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내방.
4. 27	충북도 지사가 정보과장·보안대장·중원군수·충주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새마을 사업 독려차 내방.
5. 3	내무부 새마을과장이 경제동향보고마을을 선정하자 내방.

그러나 사업 량이 방대해서 5월에 들어가서 사업의 7할도 완성하지 못 했다. 영농기가 다가와서 출역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과장은 “새마을과장 이하 새마을과 직원이 풍덕마을로 출근하여 새마을 사업을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군 트럭은 풍덕마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세영은 그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당시에는 새마을과 직원은 풍덕에 와서 살다시피 하고 군 트럭은 풍덕마을 자가용처럼 사용하므로 인근 마을에서는 저렇게 군청에서 지원하면 새마을 사업을 못 하는 마을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린다는 풍문도 들렸다.²¹⁸⁾

5월 25일 마을총회에서 새마을 사업은 모심기 관계로 중지하고, 새마을 사업 때문에 논갈이가 많이 밀려서 새마을을 정신으로 협업화하여, 모든 논갈이와 모심기는 반별로 작업하도록 결정했다. 결국 농사는 제시간에 끝났다. 1973년 풍덕마을은 새마을 시범부락, 이세영은 우수 새마을지도자로 선정되었다.²¹⁹⁾

자립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과욕한 사업 량을 지정하고 마을주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례가 경기도 칠원마을에서도 발견된다. 1976년 내무부는 칠원마을을 ‘월래동향보고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87가지의 크고 작은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3일 동안에 보완하라고 했다. 김기호 새마을지도자는 수기에서 이 방대한 사업들은 3년이 걸려도 못다 한다고 했다. 풍덕마을과 비슷해 이 방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마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야로 작업했다. 군청과 읍사무소, 농촌지도소 직원들도 모두 칠원마을로 출근하여 새마을사업을 도와주었다. 결국 3일 동안에 87가지의 지적사항이 모두 보완되었다.²²⁰⁾

1973년 이후 풍덕마을에서는 새마을 사업이 지속되었으나,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 포장·소교량 가설·회벽 바르기·주방개량 등 환경개선 사업들이었다. 1978년에 풍덕마을은 정부 보조금 1백만 원으로 공동 축사를 건축하여 송아지를 사육했으나, 78년 하반기부터 소 값이 폭락함으로 적자 운영이 되어 1979년에 폐쇄되었다.

<표11> 1974~1990년 풍덕마을 새마을사업

연도	내용
1974	논두렁 바로잡기.
1975	농로확장; 마을 안길석축 쌓기.
1977	농로 연결 소교량 가설; 영향 개선의 집 시설; 마을 전 가호 회벽 바르기.
1978	공동축사 세움.
1979	간이급수시설 준공.
1980	경로당 준공.
1981	면 새마을 유아원 설립; 유아원 옆에 있는 구매점을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
1982~1984	진입로 포장.
1985~1989	마을 안길 포장.
1990	주방 개량.

새마을운동은 흔히 ‘잘살기 운동’이라고 한다. 해방 후 선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의 뒷받침 아래 농촌주민들은 잘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 마을개발에 관한 정부의 개입은 확대되었다. 정부의 자금·자재·행정지원은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보다 환경개선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살리는커녕 농가부채의 급증을 초래했다.

218) 이세영, 『풍덕마을의 새마을 운동 : 이세영 새마을 서훈지도자 수기』, 서울문화인쇄, 2003, 306쪽.

219) 「새마을지도자대회」, 『경향신문』 1973년 11월 22일자.

220) 김기호, 『새마을 수기: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 학문사, 2003, 292쪽. 1977년에 전국 8개 도 16개 마을의 316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자립마을이나 자조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새마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만 뒷받침하거나 관은 기술지도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새마을사업 수행시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하고, 마을 실정에 맞추어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47호, 1999, 61쪽).

1981년 농협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 호당 금융자산은 46만 1천원인데 비해 금융부채는 74만 1천원이었다. 81년도 상반기 농촌인구의 순진출률은 1.57%로 전년 동기의 1.24%보다 늘어났고, 가구전체가 이농하는 비율은 80년의 26.2%에서 81년의 36.7%로 증가했다.²²¹⁾ 1973년 풍덕마을 총 인구는 557명이었으나 1996년에는 25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한 농민은 수기에서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마을기금이 떨어졌고 주민 간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났으며 마을발전에 대한 의욕도 상실했다고 했다.

애시당초부터 마을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오로지 국가시책이라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우리 부락의 새마을사업의 결과는 더 잘 살아가고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보다는 기와스레트·초기지방이 상징해 주는 것처럼 각 가정들의 생활의 격차만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기 다른 이해관계들이 서로 조정되지 못한 채, 응어리진 감정들만 더욱 심하게 나타났고, 부락 공동기금도 바닥이 나 버렸다.…… 여기에 시멘트 지원이라는 물량공세와 더불어 한층 강화된 행정적 간섭은 사람들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갔고 마을발전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케 해 버렸다.²²²⁾

5. 결론

전통시대로부터 마을주민들은 동계를 조직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19세기 후 반촌의 동계는 사족층의 향촌지배기구의 성격을 벗어나 계원들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해방 후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풍덕마을에서는 계몽회가 조직되었다. 청년들은 문맹퇴치도 박근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마을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마을 행정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1950, 60년대에 풍덕마을 주민들은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정미소·농산물가공 공장·양어장을 건립하고 마을 발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마을의 공동체적 결속력도 강화되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마을개발에 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편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협의회→읍·면추진위원회→이동개발위원회'라는 수직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내무부를 새마을운동을 주관하게 했다.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면직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1950, 60년대 전국 각 지역에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인물들을 새마을운동으로 흡수하여 이들과 손잡고 새마을사업을 추진했다.

새마을운동에서 전국 모든 마을이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자조마을·자립마을로 분류되었다. 1972년 말 풍덕마을은 자조마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971~72년에 풍덕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라기보다는 해방 후 축적해 온 마을발전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3년 3~5월 풍덕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방대한 사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농사를 못 짓고 남너노소 할 것 없이 주야로 새마을사업만 했다. 결과로 1973년에 풍덕마을은 새마을 시범부락으로 선정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풍덕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었다. 소득을 높이지 못하고 지출만 늘어났으니 농가부채가 급증하여 이농이 지속되었다.

청·장년들이 마을을 떠났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농촌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개발에 있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빚을 지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농민 보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농현상 특히 청·정년들의 이농이 억제되어야 마을발전을 위해 나서는 지역주체를 확보할 수 있고, 전통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마을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도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 조직이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키우는 데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추진하는 방식은 불만을 일으켜 농촌 주민들의 개발의욕을 높이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농협조사 농가부채 늘어나」, 『매일경제』 1981년 10월 6일자.

222) 노금노, 『땅의 아들 1』, 돌베개, 1986, 150쪽.

HK통일인문학연구원
2011년 3월 월례발표회
2011. 3. 29(화)

「새마을운동의 추진기반과 추진주체에 관한 一考 -
충청북도 풍덕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질의

정서문예팀 조홍윤

선생님의 발제문은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기반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으며 새마을 운동의 진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하여 토론자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에 미치지 못하는 졸렬한 질이라 해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정부의 견해와 달리 새마을 운동 이전부터 자생적인 조직에 의해 농촌계몽과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며,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자생 조직들의 성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에 다소 성과주의적이며 강압적인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농민들을 괴롭히고 농촌사회에 갈등을 만드는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또한 대체로 그에 동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이해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1. 새마을 운동의 추진기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풍덕마을의 생활공동체는, 자생적인 농촌계몽 조직의 선례(善例)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에서 새마을 운동의 성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덕마을을 비롯하여 예로 드신 마을들은 자생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와 달리 조직적인 활동이 미비한 마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마을들에서 새마을 운동의 성과 또한 미비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새마을 운동의 기반이 자생적인 생활공동체에 있었다는 선생님의 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된 바가 있는지요?

2. 서론에 연구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시길, “한국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제3세계 국가의 농촌개발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중, 제3세계 국가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는 본고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후속되는 연구에서 이에 집중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 새마을 운동의 장단점과 그것을 보완 적용할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그리고 계신 청사진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새마을 운동은 중앙관청-지방관청-마을로 이루어지는 일계통의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 국민을 하나의 명령체제로 묶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민반 조직과 기능적·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 된다면 연구단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생님의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분명한 차이를 얻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둘이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연구결과를 만들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선생님께서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고민해보신 사항 중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거나 앞으로 포함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 선생님들께 귀한 조언을 얻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